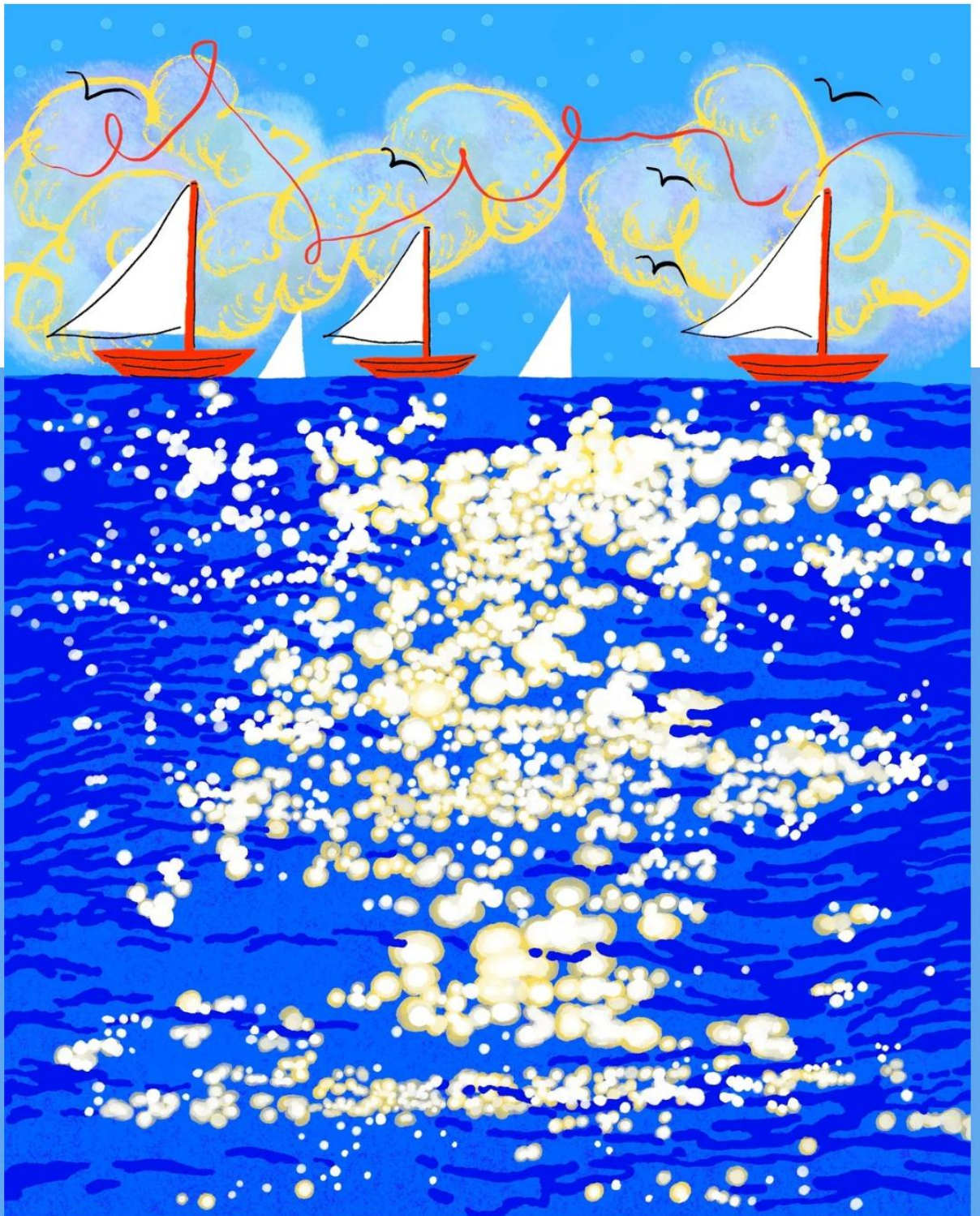


울산 시민교회 계간지

# 시민 누리애

세상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 사랑

2026.06.SUMMER  
VOL.10



# CONTENTS

2026. 여름 Vol.10

누리아의 향연	03	시편 84편
목회 공감	04	찬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부신 초대
여름호 특집	06	목자, 목녀님의 20년 그 따듯한 기록
집중 조명	12	구치소 사역 -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목장 탐방	14	하나님께서서 함께한 자리 - 송태성 장애인 전도협회 목장
삶의 현장	16	AI 시대를 선하게 이끌 다음 세대 리더의 요람 - 김홍일 싱글목자
쉬어가기	19	일러스트 - 권시아(파워틴)
마음 나누기	20	예수님 영접모임 (고용현 / 조선주)
	24	생명의 삶 (안예슬 / 유진이 / 정용래 / 우승엽 / 정한별 / 이효신)
	34	평신도 세미나 - 박진형
쉬어가기	38	웹툰 - 찬란한 동행 - 정시연(드림키즈)
신학 아티클	43	믿음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 - 강성민 목사
문화 광장	46	음악 산책 - '나'라는 악기를 하나님 손에 - 안현영
	48	미술 정원 - 장우진(소망부)
	52	과학 플러스 - 창조와 진화, 창조론과 진화론 - 곽규진 집사
	56	건강 톡톡 - 파킨슨병 - 전병찬 집사
	58	생각하는 독서 - 감정의 세계가 곧 나의 세계다 - 이영두 집사
쉬어가기	61	시민 책방
동호회 소개	62	탁구 선교회 - 탁구로 나누는 기쁨, 복음으로 피어나는 생명
쉬어가기	68	여름 독서여행
우리의 도약	70	26년 3월~5월
열방을 향하여	74	말레이시아 SEA부족 성경번역 및 활용 이야기 - 이요한, 조이 선교사
쉬어가기	77	누리아 퀴즈
새 가족 소개	78	3, 4, 5월 새 가족 소개
편집을 마치며	82	문서사역부 일동
표지 그림 소개	83	찬란 여름호

# 누리아의 향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피 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 찬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부신 초대

담임 목사 김창훈



해 질 녘 붉게 물든 노을을 보면서 걸음을 멈추고 감탄해 본 적이 있으시지요? 시골이나 산에 갔다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보며 경이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시지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빛나는 것들에 마음이 끌립니다. 단순히 눈이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태초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찬란 속에 거했던 아름다운 시간에 대한 흔적을 우리 영혼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찬란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되며, 몇 가지 단어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호드’는 범접할 수 없는 왕이신 하나님의 품격과 권위를 뜻합니다. ‘하다르’는 하나님의 위엄이 밖을 향하여 눈부시게 발산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카보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으로 묵직한 힘으로 다가와 우리를 붙잡는 것과 연결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찬란함’이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로 넘쳐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찬란함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매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쉽게 그 빛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걱정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  
본능적으로 우리는  
빛나는 것들에 마음이 끌립니다.  
단순히 눈이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태초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

“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

우리도 이스라엘과 닮은 것 같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 내일의 염려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와 있는 하나님의 찬란함을 보지 못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전은주 사/곡,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시편 27편에 기초한 곡).

그 눈부신 하나님의 찬란함이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변화산에서 해 같이 빛나던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찬란함을 살짝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찬란한 왕께서 가장 낮고 어두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망과 슬픔이 감싸고 있는 십자가 뒤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빛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의 자리에 늘 예수님을 옆에 모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모진 고난이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찬란한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찬란함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밤하늘의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도 태양빛을 반사해 어둠을 밝히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면 찬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우리의 빛이 흐릿해졌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할 때, 흐릿해졌던 우리의 광채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나에게 베풀어주신 주님의 찬란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세요! 나아가다 고난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눈부시게 변화시키실 그 날을 기대하세요! <시민 누리아>의 이번 주제인 ‘찬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빛을 사모하고, 그 빛에 노출되고, 그 빛을 반사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 시민 누리애 여름 특집!

목자, 목녀님의 20년  
그 따뜻한 기록

눈물로 심고 은혜로 거둔 20년의 기록



- 극기성 목장 -

2006년 가정교회로 전환하며 목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섬김을 받기만 했으나, 직접 섬기는 과정에서 '섬김의 복'과 신앙의 참된 기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을 회상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기에 가족 구원이 간절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며 시골의 어머니와 형수님께 복음을 전했고, 결국 두 분이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년 뒤에는 형님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니 목장을 통해 17명의 VIP가 다녀갔고, 6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두 번의 분가를 이뤄내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혼 위기에 처해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당시 장로님은 자매님에게 무척산 기도원에서 일주일간 기도해 볼 것을 제안했고, 본인도 그 기간 새벽마다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자매님이 연락을 끊고 기도원에 다녀온 후, 남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했으며, 이혼 대신 용서와 화합을 선택했습니다.

이 가정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며, 이는 목자 사역 중 가장 감사한 기억 중 하나입니다.



# 시민 누리애 여름 특집!

목자, 목녀님의 20년  
그 따뜻한 기록

내게는 능력이 없기에.  
내일도 주님께 붙어있으려 합니다.

- 송태성 목장 -

안녕하세요, 목자로 섬기고 있는 송태성입니다. 먼저 저희 목자 사역 원칙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첫 번째, 기쁘게 섬기자입니다.

목장 초창기에 인원이 적어 목장을 두 번(목요일, 금요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엔 조금 오고 금요일에 다 오셔서 '힘들게 두 번 하는 의미가 없나' 하며 새벽 기도 시간에 투덜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쁘게 섬기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역이 되기 쉬운 목자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 2. 두 번째는 사랑을 먹이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섬기는

목장 식구는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양이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여야 하나 고민하는데 그 앞 구절에 답이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을 먹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허리를 삐끗해 앉아 있는데 '내 안에 선한 구석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결국 섬기는 기쁨도, 사랑도 주님께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3. 마지막은, 주님께 붙어 있자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사랑이 흘러넘쳐 목장 식구를 먹일 수 있습니다. 붙어있는 방법은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을 섬기니 영혼 구원의 열매와 분가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다면, 솔직히 제게는 그럴 능력도 열정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일 눈 뜨면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보내다가 금요일이면 목장을 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지내다 보면 언젠가 기쁨으로 주님을 뵈올 날이 올 것입니다.

# 시민 누리에 여름 특집!

목자, 목녀님의 20년  
그 따뜻한 기록



목자로서 가장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준 건 하나님과 목장식구들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이혼 후 아픔을 겪고 있는 자매님과 별거 중인 형제님과 평생 열심히 번 돈을 갖고 달아난 여자 때문에 뇌졸중이 와서 신체를 잘 쓰지 못해 기초수급자가 된 형제님이 그때의 목장식구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때 그 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매주 와서 식탁에서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말을 안 해도 그들의 슬픔이 목자 목녀의 슬픔이고, 그들의 기쁨이 목자 목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매주 와서 밥을 함께 먹고, 기도한 그 사랑이 지금 생각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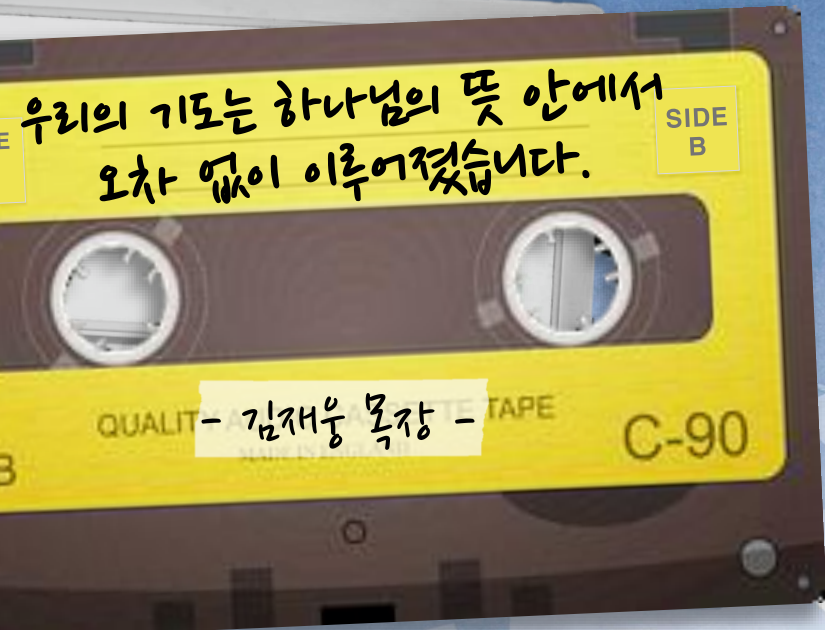
너무도 귀하고, 그때 그분들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 가정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장 모임 시간을 기억하여, 각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목장에 나와 자신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기도하며 함께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늘 받기만 한다며 그 먼 거리에서 걸어와 불가리스 요거트를 건네며 걸어가던 형제님의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 시민 누리애 여름 특집!

목자, 목녀님의 20년  
그 따뜻한 기록



어서는 방법으로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본 종들처럼 그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 2. 공동체(가정교회 목장)를 통해 사역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 사역을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목장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는 '어머니의 자궁' 과 같은 곳입니다. 대적 마귀는 군대로 오기에 우리는 혼자 싸울 수 없으며, 목장 식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영혼 구원에 쓰임 받고 싶으시다면, 꼭 가정교회 목장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남겨줄 유산은 건물이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는 '목장 사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웅 목자입니다.

2006년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과 순모임만으로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가정교회 목장을 도입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묵묵히 바라보며 깨달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1.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차 없이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

# 시민 누리애 여름 특집!

20년 목장의 비밀을 묻는다!

## 변홍일 목장

“끊어진 가족의 사랑을 되찾아 주는 목장”



Q. 20년 전과 비교해 가장 ‘회춘’ 하거나 변화된 점?

A: 설교를 요약하는 수준이 늘어났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도 늘어났습니다.

Q. 지칠 때 힘이 되었던 순간은?

A: 18년 전, 한 목원이 맡겨둔 돈으로 “목자님 양복 구입하시라”고 전화를 주셨을 때, 그 따뜻한 배려가 여전히 큰 힘이 됩니다.

Q. 목장 모임 중 가장 웃겼던 ‘레전드 사건’?

A: 남편이 숨겨둔 약이 영양제인줄 알고 몰래 훔쳐 먹었는데.. 알고 보니 수면보조제 멜라토닌이었다는 사실! 자꾸 잠이 쏟아져서 한참 웃었네요.(^^)

## 안명한 목장

“기쁨과 감사로 빚어낸 헌신”

Q. 목장을 분가시키던 날의 솔직한 심정은?

A: 자식 장가보내는 부모의 마음처럼, 오직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던 시간입니다.

Q. 20년 동안 우리 목장을 관통한 최고의 기도 제목 한 줄은 무엇이었나요?

A: 목원의 아들 편원기 교통사고 완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Q. 가장 ‘눈물 젖은 밥상’으로 기억되는 메뉴는?

A: 연세 많으신 두 가정이 실버목장으로 가시던 날, 함께 나누었던 만찬 비빔밥입니다.

# 시민 누리애 여름 특집!

20년 목장의 비밀을 묻는다!

## 정경석 목장

“끊어진 가족의 사랑을 되찾아 주는 목장”

Q. 요즘 젊은 목원들이나 새 가족들을 보며 "아, 이건 정말 배울 점이다"라고 느끼는 세련된(?) 점은?

A: 본인이 옳다고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강렬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이제 막 목자/목녀의 길을 걷기 시작한 후배들에게 전하는 짧고 강렬한 팁!

A: 섬기려는 섬김의 자기 이유를 명확히 하여 사소한 흔들림에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Q. 교회 40주년 기념지에도 실릴 미래의 우리 목장 모습을 상상하며 한마디?

A: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할 수 있게 환경과 여건과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 김동성 목장

“당연한  
순종으로  
지켜온 20년의 거실”



## 김세범 목장

“혼자하지 말고  
목원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Q. 20년 전 첫 모임을 한마디로?

A: 개척 교회의 모습

Q. 목장의 필살 메뉴는?

A: 돈까스

Q. 거실을 지켜온 가장 고마운 물건?

A: 에어컨

Q. 20년 전의 나에게 짧은 격려 한마디는?

A: 진짜 수고 많았다.

Q. 20년 전 첫 모임을 한마디로?

A: 당연한 순종, 자연스러움

Q. 목장의 필살 메뉴는?

A: 삼계탕, 찜요리

Q. 거실을 지켜온 가장 고마운 물건?

A: 꽃차 전시대(특히, 해독차)

Q. 20년 전의 나에게 짧은 격려 한마디는?

A: 부담으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최요섭 목사

##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ㄹㄹ

2023년 12월 마지막 주, 울산시민교회 부목사로 부임하며

1년 동안 울산 구치소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 왔지만, 구치소 사역은 처음이었기에

기대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컸습니다...

2026년, 다시 한번 구치소 사역을 맡을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ㄹㄹ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치소 사역은 두 달에 한 번씩 시민교회가 담당하여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약 10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하여 찬양과 말씀, 그리고 영접기도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시민교회에서 오후 1시에 모여 출발하면, 1시 30분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약 50여 명의 재소자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저희는 찬양 순서지와 작은 간식(빵)을 준비하여 함께 나눕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봉고차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며 간증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치소 정문을 통과하는 것조차 긴장되었습니다. 신원 확인을 거치고, 여러 개의 철문을 지나서야 예배가 드려지는 강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제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예배는 회개와 보혈의 찬양 여섯 곡으로 시작하여, 이선홍 장로님의 특송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약 20분간 복음 중심의 말씀이 선포되고, 마지막으로 박영권 팀장님의 인도로 영접기도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에 많은 재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구치소 사역팀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둘째, 구치소 예배를 통해 재소자들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고, 회개와 변화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셋째, 구치소 사역을 통해 믿지 않는 종사자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과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하나님께서 함께한 자리

- 송태성 장애인 전도협회 목장 -



4월 17일 저녁 6시 30분, 봄비 소리를 들으며 송태성 목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반갑게 맞아 주신 목녀님의 안내를 따라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창밖의 아름다운 조경과 아늑한 거실 분위기였습니다. 감색 계열의 소파와 창밖 풍경이 잘 어우러져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었고, 아이들이 하나둘 나와 인사하는 모습은 목장의 활기와 다양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목녀님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식탁은 보기에도 푸짐했고, 맛 또한 훌륭했습니다. 샐러드와 고기, 야채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식단 덕분에 처음 방문한 자리임

에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막내 다경이가 작은 손으로 식기와 종이컵을 가지런히 놓으며 식사 준비를 돕는 모습은 참 귀엽고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 목장 탐방 송태성 목장

식사가 끝난 후 아이들의 힘찬 목소리와 함께 찬양을 불렀고, 곧바로 올리브 블레싱을 하며 시험 준비나 학교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특별했던 점은 올리브 블레싱을 마무리하며 축복 기도를 할 때 민수기 6장 22 ~ 27절을 인용하는 점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 목장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기에 적절하여 우리 목장에서라도 시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리를 떠난 후에는 박성문 자매님이 주일 말씀 성경 구절을 읽어주셨고 권영국 집사님이 말씀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후 황만철 집사님이 시민 편지까지 읽어주셨는데 가만히 집중해서 듣고 있다 보니 배정된 각자의 역할이 정말 목소리 톤이나 분위기가 딱 적격이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듣기 편하고 귀에 쏙쏙 내용이 전달되어서 좋았습니다.

### † 민수기 6:24-26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나눔을 시작하며 목장 식구들의 삶을 듣게 되었는데 비록 한 번이지만 다른 목장의 나눔을 참관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하다고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공통된 삶의 태도가 낯설지 않게 느껴져 편안하게 그 시간에 녹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눔도 어느덧 끝나고 함께 기도로 시간을 마친 뒤 목장 식구들의 따뜻한 배움을 받으며 집 밖을 나오니 잠시였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 자리에 감사히 잘 있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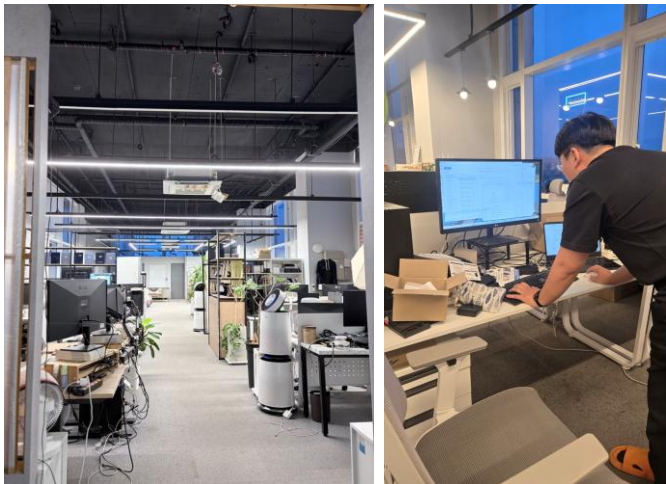
# AI 시대를 선하게 이끌 다음 세대 리더의 요람

김홍일 싱글목자



올 2월에 창업한 새내기 벤처 기업가를 만나러 취재진들은 바빠 움직였다. 마침 AI를 활용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초등학교생들이 하고 있는 중이라 더욱 기대가 되었다. 중구 종가로에 위치한 타워더모스트 사무실은 팀 솔루션과 나니아랩 공동으로 쓰고 있었는데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다정한 얼굴이 눈에 띄었다.

비전을 얘기하다보니 세 명의 공통점이 다음 세대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선하게 이끌 인재들을 키우는 학교를 설립하자, 선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의 교육 방식 보다는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 등 뜻이 모아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안녕하세요 김홍일목자님, 이렇게 일터인 삶의 현장에서 만나니 기분이 새롭습니다. 창업을 한지 한 달이 되었다고요?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A. 24년 울산 양육원 크리스마스 봉사 현장에서 만난 창립자들의 비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예뻐키즈를 섬기고 있는 김찬석 형제와 팀솔루션 대표와 만나 서로

Q. 석박사 과정을 하면서 처음부터 창업할 생각은 아니었죠? 목자님께서 나름 계획을 갖고 계셨던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를 한 셈이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볼까요.

A. 네. 저나 김찬석 박사나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려고 했고, 김 박사는 미국의 국립연구소에서 오퍼가 왔고, 저도 현대의 두 곳에서 오퍼가 온 상태였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취업하고 안정적인 가정 안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양육원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야 혼자 잘 살면 되는데... 어쩐지 주님께서서는 다 같이 잘 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서는 이 친구들을 위한 길을 마련해 두셨겠지만 기회가 잘 없는 이 친구들에게 남들이 배울 수 있는 교육을 통

한 길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로 교육이나 비전 교육, 여러 멘토들을 만나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싶었습니다.

**Q. 회사 이름이 나니아 랩(Narnia Lab)이라고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간단히 말하면 새로운 미래 리더 양성이 핵심 가치이고요. AI 시대를 선하게 이끌 다음 세대 리더를 세워 가족애, 사랑, 진로설계, 멘토링 등을 통해 홀로 서기가 아닌 함께 서기로 당당한 자립을 할 수 있게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Q. 처음 계기가 양육원 아이들을 만나면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52 패밀리, 즉 시설 보호 아동에게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정서적지지 체계인 이모/삼촌 관계를 형성해 일시적 후원을 넘어선 지속적 관계 맺기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 근육을 강화, 멘토 역할을 함으로 자립할 수 있는 꿈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Q.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AI 교육으로 만드는 게 나니아랩이군요.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A. 학생들이 본인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본인만의 게임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본인만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창업하게 하는 것입니다.

**Q.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니까 거기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생각지 못한 발상들이 더해져 참으로 획기적인 일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창업이라는 게 말이 쉽지 어려운 출발이잖아요? 주변에서 반대하거나 창업하기까지의 여러 힘들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A. 아직까지 반대에 부딪친 적은 없습니다.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겠쥬. 앞으로 여러 어려움이 생기리라 봅니다. 그래도 옆에서 저를 응원해 주는 아내가 말하기를, 제가 이 일을 할 때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본 것 같다고... 아내가 이해



해 주고 인정해 주니까 용기가 나서 아직 어려움은 잘 모르겠습니다. ^^



Q. 김찬석 대표와 같은 회사를 운영하고, 교회의 성도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서로 기도하는 동역자로서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A. 네.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일을 한다는 게 든든한 힘이 되고 서로 계획들을 추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실행하는 게 무엇보다 좋습니다. 서로 발전을 위해 김 대표나 저나 새벽에 포항 가서 교육 받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는 힘의 원천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나니아랩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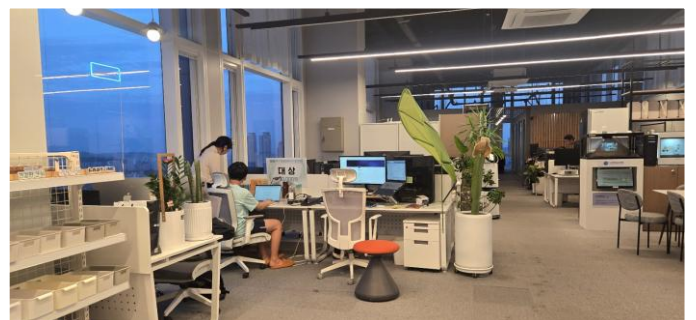
A. 3년 안에 150억을 모으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겠더군요. 우선 고등학교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서울에 있는 분들도 울산에 학교가 세워지면 유학을 오겠다는 분들도 있고요. 가장 절실한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니아랩을 위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홍일 목사님,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니아랩의 무한한 발전을 바라겠습니다.

A. 방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쪽 사무실에서 학습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눈망울들이 초롱초롱했다. 그 눈빛들이 나니아랩의 미래이지 않을까 싶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두 젊은이들의 의기투합에 꿈이 현실이 된다는 문구도 떠오르고, 그들이 시민 공동체의 성도라서 뿌듯함을 안고 돌아오는 발걸음이었다.

- 취재. 글 류민희 이태순





일러스트 : 권시아 (파워틴)

## 하나님의 은혜에 빛진 사람

고용현 성도

김동욱 극동방송 목장



어린 시절 저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또래보다 조금 일찍 세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집에 찾아오면 부모님을 피해 숨어야 했던 날들이 있었고, 그 기억은 어린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언젠가는 꼭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며 어린 나이에 삶의 무게를 느끼던 시간들이 제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친구들이 학업과 꿈을 이야기할 때 저는 생계를 위한 준비를 먼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대신 공업 고등학교에 진학해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군 입대 전까지도 주말마다 쉬지 않고 일을 하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함께 보냈던 추억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 깊은 상실의 아픔, 그때 다가오신 주님

군 복무를 마친 뒤 새로운 희망을 품어 보려던 제게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의지했던 친구를 떠나 보내야 했고, 너무나 사랑하던 어린 조카의 죽음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상실감은 그 어떤 가난보다

도 더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조용히 제 삶에 다가와 주셨습니다.

“여호와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도다.”  
(시편 34:18)

주님은 제가 절망하며 울부짖을 때 멀리 계시지 않고 제 곁에 계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제 곁에 두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였고,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 다시 세상으로, 그리고 찾아온 삶의 시련

그러나 사람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을 잊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잠을 줄여 가며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스물일곱 살이 되었을 때, 큰돈이라 할 수 있는 돈이 통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느꼈던 기쁨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누님의 어려운 형편을 돕게 되면서 그동안 모아 두었던 돈을 모두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 제게는 큰 빛이 남게 되었습니다.

누님은 제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다섯 형제 중 늦둥이로 태어나 누님과 열일곱 살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누님은 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얼마 되지 않는 월급으로 제 손을 잡고 작은 옷 가게에 데려가 옷을 사 주시곤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고무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제 발을 씻겨 주시던 기억도 있습니다. 누님은 제 삶에서 늘 큰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님의 어려움을 돕는 것은 제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모아 두었던 돈이 사라지고, 이제는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밤낮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생계 일을 하며 몇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갔지만, 제 앞에 어떤 미래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 벼랑 끝에서 만난 귀한 선물, 아내

삶의 벼랑 끝에서 있었던 어느 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제 삶에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

게 지치고 무너져 있던 제 삶에 하나님은 아내라는 귀한 선물을 보내 주셨습니다.

아내는 제 상처와 과거를 알고도 기꺼이 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모두가 제게서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아내는 저를 믿어 주었습니다. 아내를 만나면서 제 삶의 흠어져 있던 조각들이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손을 통해 저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 주셨고, 다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 세상의 빛진 자에서 은혜에 빛진 자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난할 때는 배부르게 해 달라고 기도했고, 형편이 나아지면 주님보다 세상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움 앞에서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없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의 빛을 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빛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주님이 여러분과도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조선주 성도

조필래 인도/대만목장



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입니다. 제가 보는 아이는 이제 8살이 되는 아동입니다. 이 친구를 데리고 주말은 4시간, 혹은 6시간을 같이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지, 어떻게 해야 이 친구가 지겹지 않고 보낼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는 중에, 제 앞전에 계신 선생님이 주일에는 시민교회에 데리고 가셨다는 말씀을 아이의 어머니가 하시더라고요.

교회... 별로 가고 싶지는 않은데 날은 춥고 특별히 갈 곳은 없고, 선뜻 내키지는 않지만, 시간이나 때우자는 심정으로 소망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소망부에 전도 사님과 선생님들이 전에 한번 보았던 우리 아이를 기억하며 무척 반갑게 반겨주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시간 때우자, 하는데 뜻밖에 선생님들이 저보고 예배드리고 오라는데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 마음에 찾아온 예기치 못한 눈물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머리만 커지고 믿음은 아주 나약하였고, 교회 안에서 볼 것 못 볼 것을 많이 보았기에

교회라는 곳은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곳이라 여겼습니다. 상처 준 사람은 없는지 몰라도, 저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기에 안 가고 싶은 곳, 가더라도 아주 먼 훗날 갈 곳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금 예배드리러 가라니... 소망부에서 본당까지 걸어오면서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어찌지? 하면서도 쭈뼛쭈뼛 교회 맨 뒤에 앉아서 멍 때리며, 여차하면 나가리라 생각하며 찬송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래도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위기에 취해서 흘리는 거야, 진정해 선주야, 분위기에 취하지 마’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며 애써 말씀을 무시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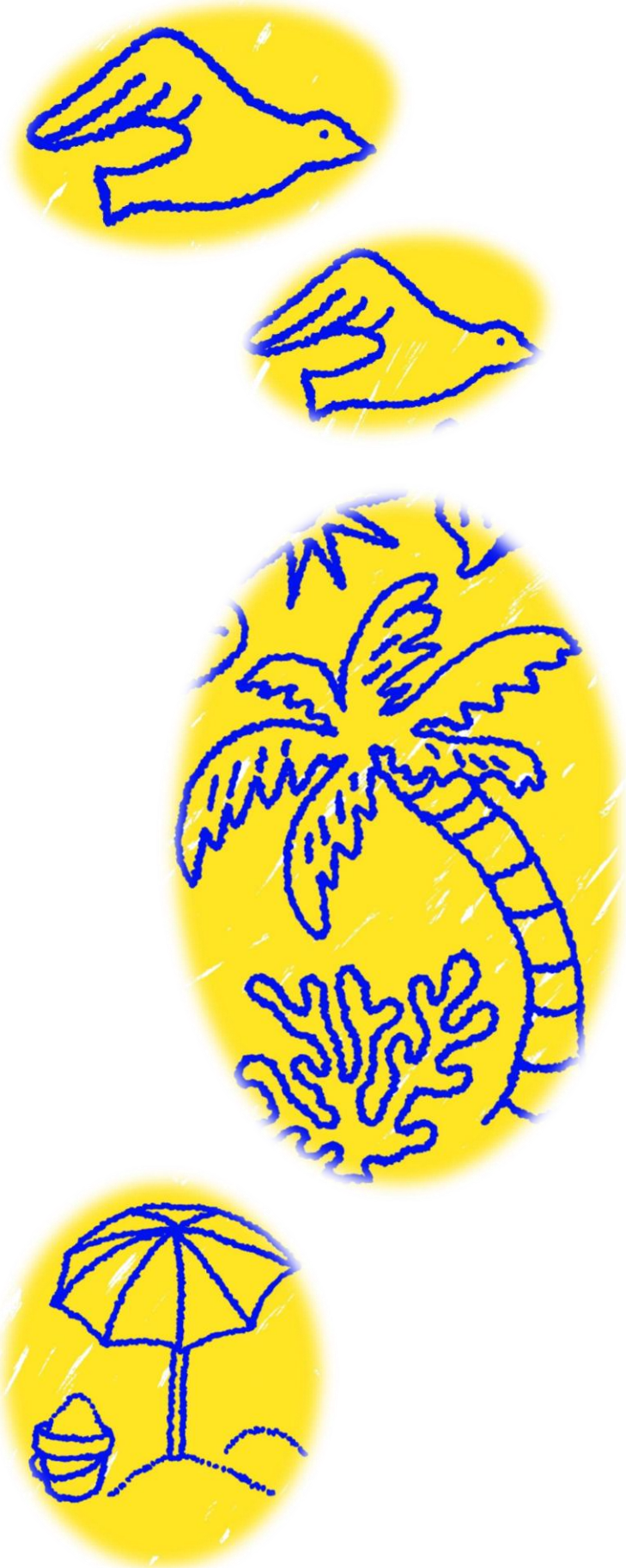
두 번째 주일, 이날도 왜 우는지 모르는 눈물이 자꾸 흘렸습니다. 근데 설교 말씀도 “누가 당신의 주인인가?” 아, 나 들으라고 말씀하시나? 그래도 우연이라 생각하며 무시하고 돌아섰습니다.

### 기나긴 방향을 끝낸 진실한 고백

3주째는 설마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시나 또다시 눈물 콧물이 터졌습니다. 근데 제 입술이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이 제 서러움에 우는 눈물이 아니길, 악어의 눈물이 아니길. 주님 저 붙잡아주세요. 나약하고 의지력 없는 저 도와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니, 왜 지금까지 방향을 했는지, 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았는지 후회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기쁘고 말씀이 들리면서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이 해주신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지금도 가끔은 '내가'가 먼저 나오지만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제 입술이 찬양을 부릅니다.



# 다시 들려온 목소리

안예슬 성도

안성훈 튀르키예 목장



이 글을 쓰고 있는 전날의 이야기입니다. 울산 극동방송 건물에서 진행되는 공모사업 최종 대면심사를 가기 위해 차에 올라 내비게이션에 ‘울산 극동방송’을 음성으로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놀라 다시 화면을 보니 10년만에 듣는 극동방송 라디오가 켜졌고,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목소리가 바로 우리 교회 김창훈 담임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마음 한편이 묘하게 울컥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어릴 적 들었던 그 감정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은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를 다니는 삶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심사를 앞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익숙하고도 편안한 목소리로 제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 따뜻했던 기억, 그리고 잃어버린 10년

저의 교회 생활은 어릴 적 마당에서 줄넘기를 하던 주일 아침 “예슬아! 교회 가자”라고 말하던 친구의 한마디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함께 성경 이야기를 듣고, 찬양을 하고, 성극도 하며 웃고 떠들던 시간들은 제 어린 시절의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지순례도 다녀오고, 악기도 배우고, 찬양팀 활동도 하며 보낸 시간들은 지금의 밝은 저를 만들어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교회 근처조차 가지 못했던 약 10년의 결혼생활은 의지할 곳 없이, 그렇게 신앙도 제 삶에서 멀어진 줄 알았습니다.

### 다시 찾은 교회의 문, 멈추지 않던 눈물

지금의 저는 두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한 부모 가정의 엄마입니다.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는 제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목장 식구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고, 지금도 그 따뜻함 속에서 교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런 내가 다시 기도해도 될까? 내가 다시 찬양해도 될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오랜만에 드린 첫 예배에서 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 내내 평평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 말씀으로 다시 채워가는 신앙의 여정

몸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교회 생활도 많이 잊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 목사님의 쉽고 편안한 말씀으로 다시 차근차근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의 제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여전히 흔들리는 순간들도 있지만, 예전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언젠가는 저처럼 삶에 지치고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들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위로와 함께 감히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용기 또한 가능했고 가능하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딸 채린이, 그리고 우리 아들 우강이, 세 식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 삶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 '생명의 삶'이 안겨준 두 가지

## 확신과 기적 같은 응답



유진이 성도

정숙임 키르기스스탄 목장

한 결혼식 주례사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아이를 낳아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시민누리아에 원고를 써 달라는 제의를 받고,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제 눈에 들어온 SNS의 글귀입니다. 무슨 내용을 써야 하나 고민하며 무작정 《생명의 삶》 교재를 펴본 제 눈에 또 이런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a, b가 작동하기 쉽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과 실천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a)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소원을 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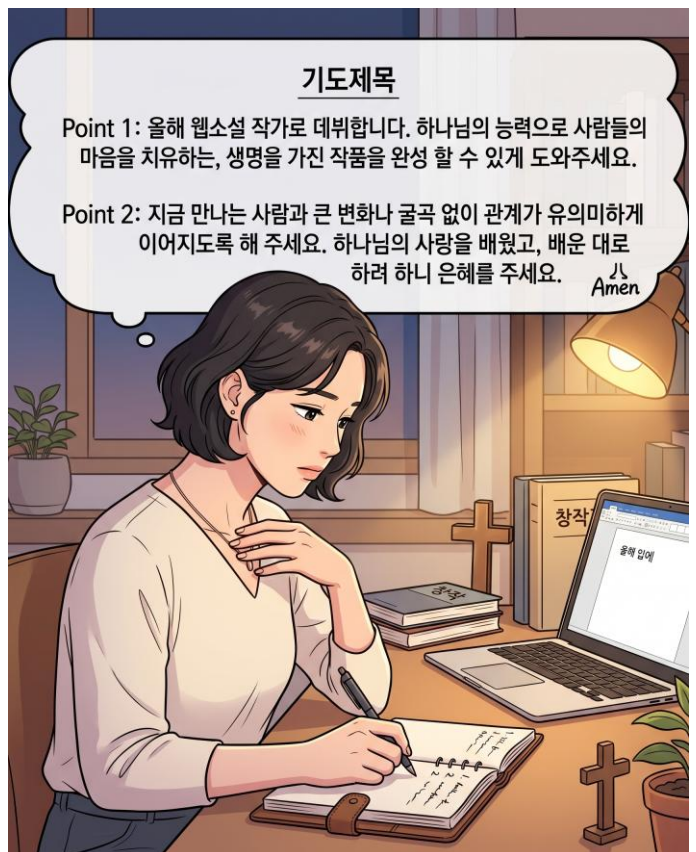
b)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성령님의 임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글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 제게 당신의 이야기를 전달하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시기에 주시는 분

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삶》을 들으며 제게 찾아온 첫 번째 확신입니다.

### 간절한 두 가지 기도 제목

두 번째 확신은 중보기도를 통해 얻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듣기 시작한 날, 저는 중보기도지를 작성했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두 가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 마음 나누기 생명의 삶

1. 올해 웹소설 작가로 데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생명을 가진 작품을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2. 지금 만나는 사람과 큰 변화나 굴곡 없이 관계가 유의미하게 이어지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배운 대로 하려 하니 은혜를 주세요.

둘 다 제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지를 채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주도 못 갈 것 같이 불안하던 관계가 3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마음에 새기며 넘긴 위기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 덕분에 첫 소설에 많은 영감을 받았고, 소설을 쓰다 힘든 날이면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 하나님의 손길, 내 소설의 영감이 되다

두 번째는 더욱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주최하는 지상 최대 웹소설 공모전은 매해 하반기에 진행되어 왔는데, 올해는 일정이 갑자기 5월 12일부터 6월 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내가 이 공모전에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성경은 약 1,550년의 기간 동안 성령의 영감을 받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서 '영감'이란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에게 깨달음과 통찰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66권의 책이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 쓰였음에도, 그 내용은 놀랍도록 유기적인 통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자 편집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제 웹소설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영감을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야기를 다듬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그분의 은혜 일 것입니다.

### 위로와 생명을 전하는 글 되게 하소서

이 글이 독자 여러분께 닿을 즈음, 저의 첫 웹소설 《마성급 호텔》의 네이버 공모전 연재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 소설이, 단 한 사람의 마음에라도 작은 위로와 생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신앙의 베이스캠프에서 영적 성숙을 향하여



정용래 목사

정용래 존귀 장애인 공동체 목장

저는 4년 전 생명의 삶을 처음 수강한 이후 이번에 두 번째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신앙생활을 지속해 왔지만, 다시금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는 저에게 신앙의 베이스캠프와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등산을 할 때 베이스캠프가 중요하듯이, 신앙의 여정에서도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신앙으로

이번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더욱 깊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놓아 주셨습니다. 특히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통해, 단순히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행하는 신앙, 그

리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성장을 향한 영적 발버둥, 안일함을 깨다

담임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발버둥 쳐야만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수 위의 오리는 평온하게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오리는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안일하게 머물러 있었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다시금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 마음 나누기 생명의 삶

또한, 목자로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삶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자라가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네 가지 결단

이번 생명의 삶 수강을 통해 저는 몇 가지 구체적인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내 안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기르겠습니다.

둘째, 매일 눈을 뜨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1순위로 하겠습니다.

셋째,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넷째,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들이 단순히 다짐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다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내 인생의 조종대를 하나님께 맡기며



우승엽 목사  
우승엽 바르샤바 목장

안녕하세요. 저는 우승엽 목사입니다. 개혁주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창훈 담임목사님의 지도 아래, 시민교회 성도로서 가장 먼저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인 ‘생명의 삶’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신앙의 뼈대를 성경적 진리 위에 바르게 세우고,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참된 제자로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장 VIP 식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신앙은 관계다

생명의 삶을 통해 저는 신앙의 핵심 주제들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신앙은 관계다’라는 진리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표지점은 단순히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마치 화분에 심겨 생명을 유지하는 식물과 꺾여 잘린 나뭇가지의 차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제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는 유일한 근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능력으로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

랑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Agape)이 저를 통해 흘러갈 때만 참된 사랑이 가능함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에,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나의 모습들을 다시금 떠올리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내가 주인이 되려 했던 자기중심적인 삶

둘째로, ‘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혁주의적 깨달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 자신이 인



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자기중심적 태도(무법)’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의 컨트롤키를 쥐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이며, 이러한 죄는 마치 꺾인 호스 처럼 하나님과 저 사이의 생명수와 같은 소통을 단절시켰습니다.

### 인생의 조종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저의 연합을 통해 저의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는 저에게 전가되는 ‘위대한 교환(행복한 교환)’이 일어났고, 저는 비로소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저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자유인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속량’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크신 사랑 앞에서 제가 결단해야 할 것은 온전한 ‘회개와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한 ‘중생과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계획하며 살았던 모든 육체의 소욕을 성령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의 통로로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을 통해 저는 거듭난(중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 수업을 통해 제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단단해짐을 느낍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조종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제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시민교회의 자랑스러운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기경된 마음 받, 생명으로 채우시다



정한별 성도

전병국 일본 목장

생명의 삶을 들은 저는 이전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자라며 주일에는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을 준비하다가 무산되는 일을 겪으며 인생에서 가장 낙심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온 가족이 간절히 기도해 주었고, 저 또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지금의 신앙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새로운 소망, 목녀를 꿈꾸다

그 이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고, ‘생명의 삶’을 신청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목사님께서 첫 시간에 신앙에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는 목자·목녀님을 꼭 닮은 목녀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좋아하는 말씀과 찬양도 생겼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7절)

또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 ‘하나님의 열심’ 찬양을 들으며 출근하면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제 삶이 달라지고 있음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 기도, 사랑을 나누는 삶을 향해

기도를 어렵게 생각했던 저였지만, 예수 영접모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해 보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 보니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정에 기도, 말씀, 찬양이 일상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의 삶공부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항상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배려와 섬김을 보여주시는 목자·목녀님과 목원 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랑을 잘 간직하고, 저도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 부부가 함께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 채워간 13주의 은혜

이호신 성도

우승엽 바르샤바 목장



저는 2026년 1월부터 시민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 결혼을 하고 울산으로 이사를 와서 남편도 저도 울산에 연고가 없고, 매주 부산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 울산이라는 곳이 낯설게만 느껴졌던 2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울산에서도 좋은 공동체를 만나 주중에도 교제를 하고 좀 더 이 지역에 정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정 지휘자 집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시민교회와 목장은 어떤 곳인지 설명도 해주셨고 목장에 속하면 좋은 점들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류민희 목녀님을 알게 되고 시민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 신앙 성장을 위한 결단

처음에 목장도 모든 것이 다 낯설었지만 목사, 목녀님께서 편하게 대해 주시고 목장모임을 하면서 마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생명의 삶공부가 시작된다고 하였을 때 13주라는 시간이 많이 길게 느껴졌지만 삶공부를 통해 교회에 대하여 마음이 더 열리고 목사님의 가르침 속에서 또 한 번 내 신앙이 성장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수강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목자, 목녀님께서도 저희만 수강하게 할 수 없다고 같이 수강하자고 했을 땐 좀 미안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같이 수강해 주셔서 정말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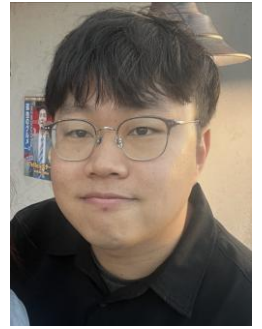
#### 부부가 함께 말씀 나누며 깊어지는 은혜

삶공부를 통하여 주일 설교 말씀 이외에 목사님께서 알려주시는 다양한 신학적 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도 생명의 삶 과정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마음이 더 열리고 저희가 주중에 집에서 같이 말씀요약 과제도 하며 함께 말씀을 읽게 되어서 더 감사한 삶공부 과정이었습니다.

13주라는 과정이 짧으면 짧고 길면 정말 긴 과정인데 매주 2시간 동안 짹짹 채워서 강의해 주신 목사님과 또 함께 수강하셨던 집사님들의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열정을 보며, 20대인 저희 부부도 많이 닦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삶공부 기간 동안 건강하게 삶공부를 완주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찬양하는 저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초대교회 그 자체를 본받기 위해



박진형 목사

작년부터 싱글 목장에서 장년 목장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가정교회 모임 순서를 온전히 지키며 하는 목장 모임을 시도해봤습니다.

함께 밥을 해먹고, 각자 역할을 맡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눔과 기도는 언제나처럼 따듯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모임을 몇 개월째 하면서도 사실 다들 입을 모아 칭송하는 ‘가정교회’가 셀, 구역, 순 등 다른 교회 소모임과 비교해서 밥 먹는 것 말고 과연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중에, 목사 필수 과정 이수를 목적으로 별 기대 없이 평신도 세미나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는 금토일 일정이기 때문에 월차를 내서 가야만 하고, 익히 알고 계시듯이 자리가 많이 없어 수강신청도 쉽지 않습니다. 또 사실 세미나 이름도 뭔가 호감이 가지러 않아 미뤄 왔었는데 강의 콘텐츠를 모르는 저로서는 이미 평신도인 사람들이 왜 굳이 평신도가 되기 위해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서는 평신도 세미나가 사실 ‘목자’

세미나에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문대로 수강 신청이 어려워 우선 뜨는 곳에 바로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신청했는데 저 멀리 용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불경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부터 많은 은혜를 더해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부부를 섬기기로 매칭된 성심교회 목사 목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오기 전부터 기도해 주신다며 저희 기도 제목을 물어봐 주시고, 올라오는 기차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 픽업/샌딩까지 챙겨주시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또, 세미나에 오기 전에 미리 읽어가야 하는 책이 있었는데, 최영기 목사님의 <가장 오래된 새 교회, 가정교회>였습니다. 사실 이 책만으로 가정교회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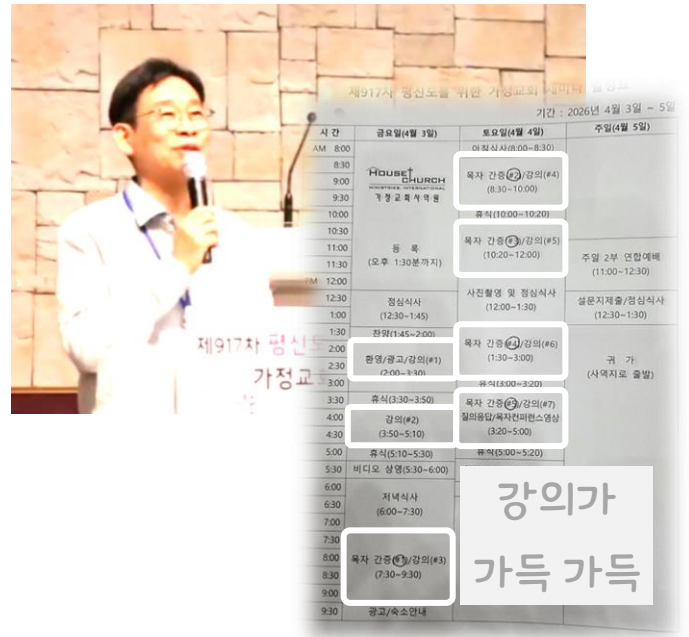
**진짜 강력  
추천 합니다!**

## 마음 나누기 평신도 세미나

올라가는 길에 간만에 목녀와 함께 기차 여행도 하며, 평신도 세미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져 갔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로 들어가는 길도 감동이었습니다. 섬기시는 목사님께서 역까지 마중 나오셔서 차로 30분이 넘는 거리를 태워주셨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자 섬기는 성도님들께서 입구에서부터 바이올린과 율동으로 한 명 한 명을 반갑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참가자들 눈에 보인 스태프는 열 명 남짓이지만 실제로는 약 마흔 명의 성도님들이 연월차를 쓰고 오셔서 식당 한편에서 묵묵히 섬기셨다고 합니다. 이내 전국 각지에서 교단을 초월하여 모인 목자, 예비 목자님들이 한 분씩 도착하셨고, 이후 서로 소개하며 각자 교회의 가정 교회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박 3일을 강의로 꽉 채운 강행군이었지만 시간이 모자랄 만큼 유익한 내용과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오기를 참 잘했던 것이, 강의가 거의 책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는데, 강의를 통해 강사 목사님의 사례들을 더하여 가정교회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에서 가장 놀라웠던 가르침은 가정교회란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 그 자체를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 천 년에 걸쳐 윗세대를 본받으며 전해진 기독교에 불가피한 변질들이 있고, 어느덧 초대교회의 권능을 잃게 된 현대 교회들이 많기에, 윗세대가 아닌 초대교회 그 자체를 본받기 위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초대교회 모임의 특징들을 최대한 살린 것이 바로 가정교회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 마음 나누기 평신도 세미나

저희 목장은 같은 가정교회 목장 모임 순서를 지켜 하면서도 이것을 그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목장 내에 꾸준한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고, 목장 식구들 간의 친밀한 교제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처럼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세워지는 일이 좀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밥을 해먹는 이유도 초대교회가 그러했기 때문이었고, 집에서 모인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역할을 나눠 섬기는 것도,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도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초대교회가 했던 그대로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목장 모임에 대한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 놔습니다. VIP를 품고 기도하거나 행나모를 하는 것도 사실 크게 의무로서 느껴지지는 않았었는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만 오로지 힘썼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니 이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다가왔습니다. 장년으로 전환되고 선교지 매칭 헌금을 다소 미루고 있었으나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 물질을 모았던 초대교회를 보니 이것도 열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기신자가 다른 교회로 떠나거나 다른 목장으로 옮기는 일에 불안을 느끼던 마음에서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수평이동으로 인원 유지하는 것이 아닌 전도로 새 영혼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 강의 전에는 헌신된 목자님들의 귀한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 목자님들을 통해서도 큰 배움이 있었습니다. 간증 목자님들 모두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장의 어려움 앞에 자신의 힘을 결국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절실한 기도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증을 듣는 내내 지나간 여러 목장 식구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으로 힘들어하던 지체, 제게 실망하고 떠나간 지체,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고 목장을 쉬고 있는 지체... 그들을 위해 간증하신 목자님들처럼 절실하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니 후회가 남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배움이 있었지만, 성심교회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서도 크게 배웠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배려해 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미나 초반에는 섬김을 받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 마음 나누기 평신도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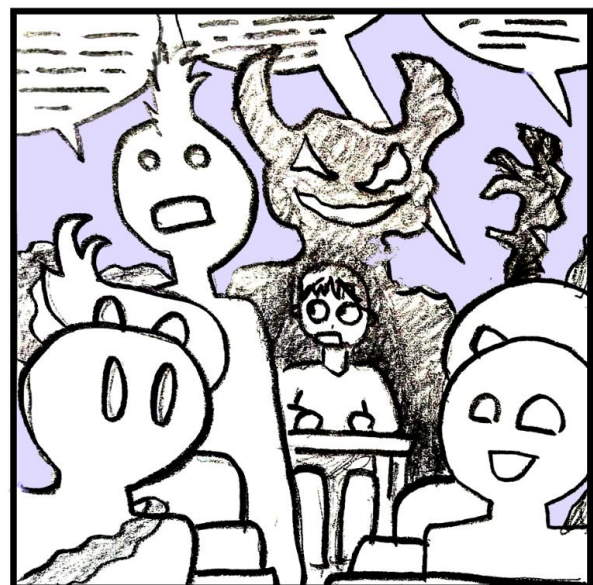
시간이 지날수록 이어지는 일관된 섬김 속에 성도님들의 진정성을 느끼며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매 휴식시간 서빙되는 고품질 디저트, 자리를 비우면 항상 채워져 있는 물병과 간식 부스, 호텔처럼 준비하여 내어주시는 목사님의 안방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누리자 마치 내가 로마의 귀족이라도 된 듯, 충성된 종의 섬김을 받는 흐뭇함을 간접 체험하며 '아, 바로 이거구나!' 했습니다. 저희 목장에 올 VIP들이 느껴야 할 감정이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진심 어린 섬김 앞에 VIP들의 부담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교회와 목장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 평신도 세미나로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확신합니다. 제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약 교회 회복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는 것을 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로 489,785번째 교회가 아닌 초대교회를 본 받은 또 하나의 2호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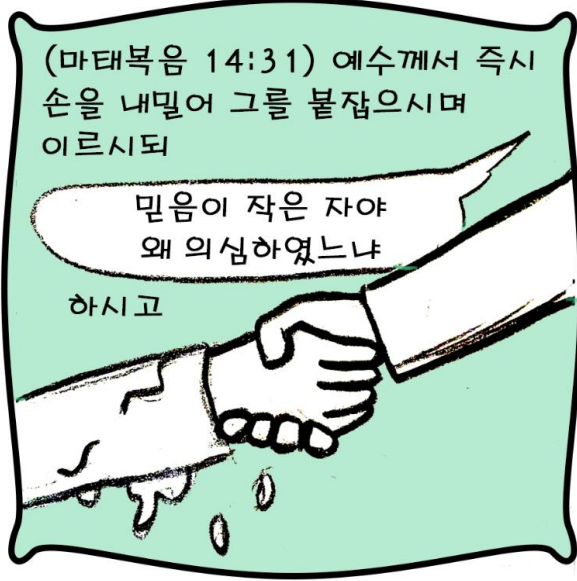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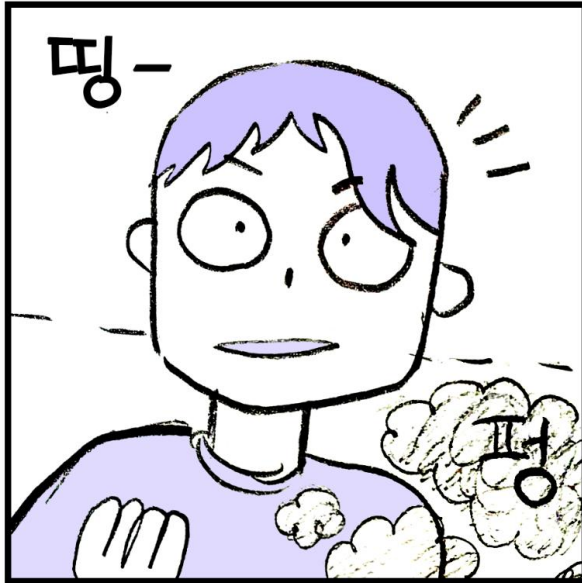
호텔인줄.. 편지와 액자까지ㅠㅠ 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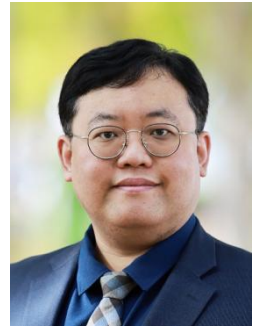








# 믿음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



강성민 목사

교회 안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하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것 아닌가, 라며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확신의 정도’나 ‘신앙의 열심’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의심이 생기거나 할 때에 ‘믿음이 약하다’고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강약의 문제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세기’보다 ‘방향’으로 다룹니다. **믿음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누구를 바라보는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성경에 “믿음이 약하다”거나 “믿음이 크다”는 표현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문맥을 자세히 보면, 믿음의 양을 평가하거나 신앙의 등급을 나누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이었습

니다. 풍랑을 만나 두려워했던 제자들, 먹을 것을 걱정했던 제자들, 물 위를 걷다가 흔들렸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그들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대목은 믿음에 대해 우리가 자주 놓치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믿음을 단순히 강하고 약한 상태로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작고 흔들렸을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말씀도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믿음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때 믿음의 양을 측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를 통해서, 믿음이 크고 강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결국 겨자씨 비유는 믿음의 강약을 비교하기보다, 믿음의 유무와 방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강약이 아니라, 유

무를 더 자주 강조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관심은 믿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내 안에서 만들어 내는 힘’처럼 이해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능력이라면, 결국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는가가 중요해지고, 믿음은 어느 순간 영적 성취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관계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믿음을 인간의 업적이나 영적 능력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로 설명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얼마나 강하게 믿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흔히 내 상태를 점검합니다. 감정이 식었는지, 확신이 줄었는지, 기도가 잘 되는지를 살핍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내 상태를 측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 밖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드러냅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 그것이 곧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믿음의 방향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의 세기보다, 방향을 묻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며, ‘믿음’을 누리는 울산시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 †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나’라는 악기를 하나님의 손에



안현영 성도

전기석 말레이시아 목장

안녕하세요. 저는 오보에 연주로 3부 시온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 오보에 연주자 안현영입니다. 시편 147:1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음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선물하신 가장 다정한 언어입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장까지, 음악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을 노래로 채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은 단순히 입술로 내뱉는 소리가 아니라, 아직은 낯설고 서툰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차근차근 향하게 하는 가장 따뜻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막 믿음의 걸음을 떼기 시작한 초신자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직은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기도가 어색해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마음을 고를 때가 더 많지만, 찬양의 멜로디만큼은 제 마음을 두드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 속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을 괴롭히던 어두운 마음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왔던 것처럼, 찬양에는 마음을 만지

고 치유하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믿음의 초신자인 제가 성가대의 일원이 되어 오보에로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참으로 떨리고도 복된 일입니다.

오보에는 오케스트라가 시작되기 전, 모든 악기가 음을 맞출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A(라)' 음을 붙여주는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보에가 기준 음을 내어주지 않으면 전체 화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저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보에의 첫 음을 붙듯 다시 하나님께 제 삶의 주파수를 맞춰나가려 노력합니다.

오보에의 소리는 때로는 애절하고 때로는 따스하여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연주자의 숨을 아주 좁은 '리드' 사이로 세밀하게 밀어 넣는 인내와 집중이 필요합니다.

오보에 연주자가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입술의 근육을 단련하고 호흡을 조절하듯, 저의 신앙생활도 조금씩 단단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툰고 예민한 리드를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지

# 리드



만, 하나님의 숨결이 나라는 악기를 통과 할 때 비로소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하늘의 선율이 흘러나오게 됨을 믿습니다.

오보에 연주자가 작은 나뭇조각인 리드를 정성껏 깎고 다듬어 소리를 준비하듯, 하나님께서도 초신자인 저를 고난과 연단, 그리고 사랑이라는 도구로 조금씩 빗어 가장 맑은 소리를 내는 존재로 키워가고 계심을 느낍니다. 결국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악보 위의 음표를 완벽하게 연주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노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가대석에서 오보에를 불 때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서서 마주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의 멜로디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보에의 오묘한 음색이 성가대의 화음 속에 녹아들어 곡의 깊이를 더하듯, 저의 작은 섬김과 부족한 믿음의 고백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저의 신앙 여정이 때로는 음이 이탈하듯 비틀거릴 때도 있겠지만, 최고의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이끌어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나라는 악기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의 가느다란 오보에 선율이 성도들의 힘찬 찬양과 어우러져 하늘 보좌에 닿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언덕, 2022, 종이에 수채화]



장우진 성도  
소망부

“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너의 머릿속이  
너무도 궁금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답답했는데  
너의 그림은 이렇게나 따뜻하고 포근하구나... ”

무표정한 너의 눈빛과 사소한 변화에도 쉽게 두려움을 느끼는  
너의 내면은 온통 회색이거나 무채색일 거라 걱정했는데,  
밝은 하늘에 새들은 자유로이 날아다니고 평화로운 이 언덕이  
엄마는 네 마음의 언덕이라 믿는다.

표현은 서툴고 다르지만,

너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다 품고 있다니 고맙고 감사해♡



마치 너의 꿈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빛깔과 일렁이는  
물감의 향연~

유독 꽃과 동물을 사랑하는  
너의 그림엔 항상 자유가 넘치고  
그 어느 곳에도 어둠이 없구나.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폐의 세계를 벗어던진  
너를 만날 수 있을까!

육체의 한계도  
시공간의 틀도 없이  
마치 영원의 세계에 사는 것처럼  
너의 붓끝에서 만나는  
꿈같은 이 순간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위안이 되길...

# 창조와 진화, 창조론과 진화론

곽규진 집사  
김재웅 라오스 사랑선교회 목장



정치 이야기만큼이나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진화 혹은 진화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진화론에 대한 글을 쓴다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을 때 생물학도인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지금 글은 아내 말을 따르지 않는 현명하지 않은 남편이 쓰는 글이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제 전공과 관련한 글을 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전공은 전산 천체물리학입니다. 전산은 컴퓨터를 사용해 뭔가를 계산한다는 것이고, 천체물리학은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을 통해 관측한 하늘에서 얻은 다양한 데이터를 물리학자들이 지구상에서 실험을 통해 입증한 물리학이라는 학문 지식을 이용해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학제간 융합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문학과 물리학 모두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학문이니 가장 오래된 융합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저는 창조와 진화는 믿음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천체물리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진화라는 말에 신념을 연상케 하는 ‘론’을 붙인 창조론과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도 저도 아닌 회색분자에 가깝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조금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창조론은 그 이름에 나와 있듯 하나님 혹은 창조자가 우주를 창조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대 천문학 혹은 천체물리학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소위 표준 우주 모형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론의 근거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특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류의 시초인 아담부터 시작하는 후손들의 나이를 모두 합산하면 6천 년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7일간 빛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부분도 문자 그대로 7일로 받아들이면 우주의 나이는 6천 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표준 우주 모형에 근거한 우주의 나이는 150억 년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큰 숫자입니다. 극단적인 진화론은 우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창조주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소위 빅뱅이라

불리는 시작점에서 우연히 혹은 자연적으로 출발했고 150억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가 태양계의 지구에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당연히 서로 부딪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창조론과 진화론은 제 전공과 관련된 우주의 나이를 갖고 부딪치지만 전선을 생물학, 지질학 등으로 확대하면 그 갈등의 정도는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조론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이 유인원과 같은 동물에서 진화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없어도 우주를 포함한 자연계가 자연스럽게 혹은 우연적으로 생겨나 진화를 거듭해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은 굳이 창조주의 존재를 주장하는 창조론을 과학이 아닌 종교로 여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 주장은 조금은 극단적인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보다 다양한, 특히 두 주장 사이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하루를 우주의 나이에 맞게 해석하기도 하고 진화론이 애써 부정하는 창조주를 진화와 함께 인정하기도 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이 글을 쓰는 어리석은 남편인 저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처지가 못 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믿는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나이가 6천 년이라는, 제

생각에 극단적으로 보이는, 창조론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제 시간의 대부분을 들이면서 생업으로 삼고 있는 전산 천체 물리학 분야 연구와 그 결과로 발표하는 연구 논문은 모두 우주의 나이가 150억 년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주의 나이가 150억 년인 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고 제가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과도 크게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는 과학은 믿음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는 신앙인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순교를 선택하는 것과 달리 자기의 과학적 발견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은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는 도구가 발전함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현상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과학적 해석은 과학적 발견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150억 년이라는 과학적 해석은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허블의 법칙을 발견한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의 경험이 이 해석을 더욱 더 공고하게 한 것이 사실이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 해석이 믿음의 수준에 다다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핸드폰을 가능하게 한 기술도 결국 지난 100여 년 간에 이루어진 과학의 눈부신 발전 때문인 것을 생각하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근거로 창조주를 부인하는 진화론자의 주장이 일면 타당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여전히 과학일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해석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경험과 과학적 발견이 나온다면 150억 년이라는 우주의 나이는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저는 극단적인 진화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우연을 가정하는 것은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믿음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 종교라 여기는 창조론처럼 진화론도 결국 종교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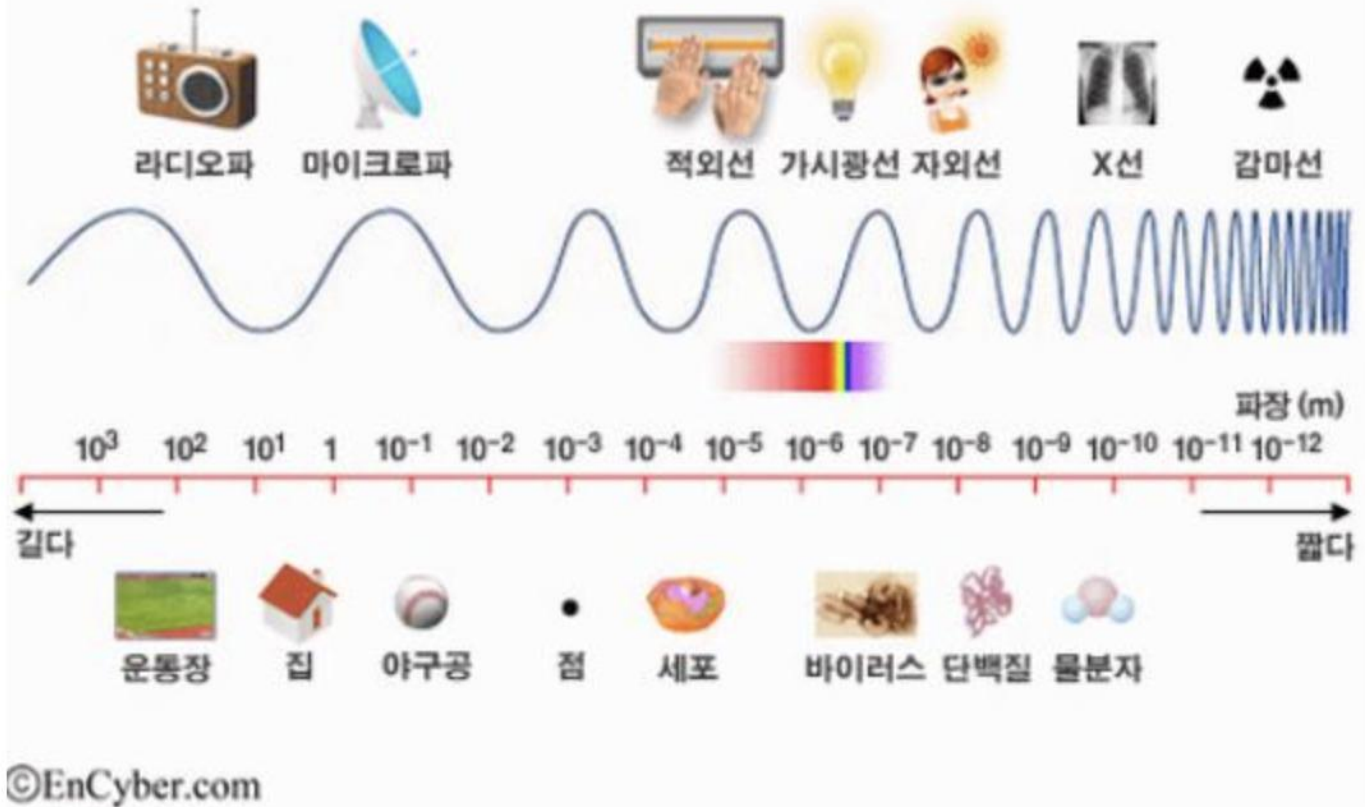
제가 청년일 때 함께 성경공부를 한 집사님 한 분이 전해주신 이야기로 이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의 클라이맥스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부족함이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성경의 앞쪽 창조에 관한 이야기와 뒤쪽 말세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큼 자세하지 않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쪽 이야기에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쏠려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자연과 우주를 탐구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은 저는 어거스틴이 작사했다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 푸른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훈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기독교 변증학자인 C. S. 루이스는 “기독교인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제 생업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를 감히 다 이해했다고 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 전자기파 스펙트럼



(이미지 출처: 자유와 풍요 블로그)

이 그림은 우리가 우주를 보는 눈이 얼마나 작은 지를 보여줍니다.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전자기파) 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주와 자연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니기에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관찰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울산과학기술원 물리학과 -



# 파킨슨병



전병찬 집사

안은영 장애인전도협회 목장

**파킨슨병**은 프로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앓았던 병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손 떨림, 뻣뻣함, 동작이 느려짐, 그리고 등이 굽고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걷는 보행 장애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편마비를 동반하는 뇌졸중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이 질환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합니다. 도파민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물질이 줄어들면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여러 운동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단순히 도파민을 복용한다고 해서 뇌로 전달이 안 되므로, 뇌에서 도파민으로 전환되는 ‘레보도파’라는 약물을 사용하여 치료를 시작합니다.

파킨슨병의 원인은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노화, 환경적 요인, 세포 기능의 이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일부에서는 유전적 요인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드물지만 젊은 연령이나 소아에서도 발생하는 사례를 통해 이러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단은 증상이 뚜렷한 경우 비교적 수월하지만, 초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떨림, 강직, 느린 동작, 보행 장애 등의 운동 증상이 명확하면 진찰만으로도 진단이 가능

하지만, 많은 환자에게서 이러한 증상보다 먼저 자율신경계 이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냄새를 잘 맡지 못하거나, 소화 불량, 어지럼증, 불면, 배뇨장애, 우울감 등의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운동 증상은 파킨슨병과 직접 연결 짓기 어려워 조기 진단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치료에 있어 많은 경우 약물치료에 의존하게 되지만, 진단 초기부터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활치료는 뇌의 기능 회복을 돕고 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초기에는 약물만으로도 증상이 잘 조절되는, 즉 신희부부처럼 ‘허니문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통 3~5년이 지나면 약 부작용이 생기거나, 약효가 떨어져 이상운동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치료와 함께 경험이 많은 주치의의 정해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심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떨림이나 이상운동증이 심한 환자에게 효과적이며, 신경외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됩니다. 다만,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

## 문화 광장 건강 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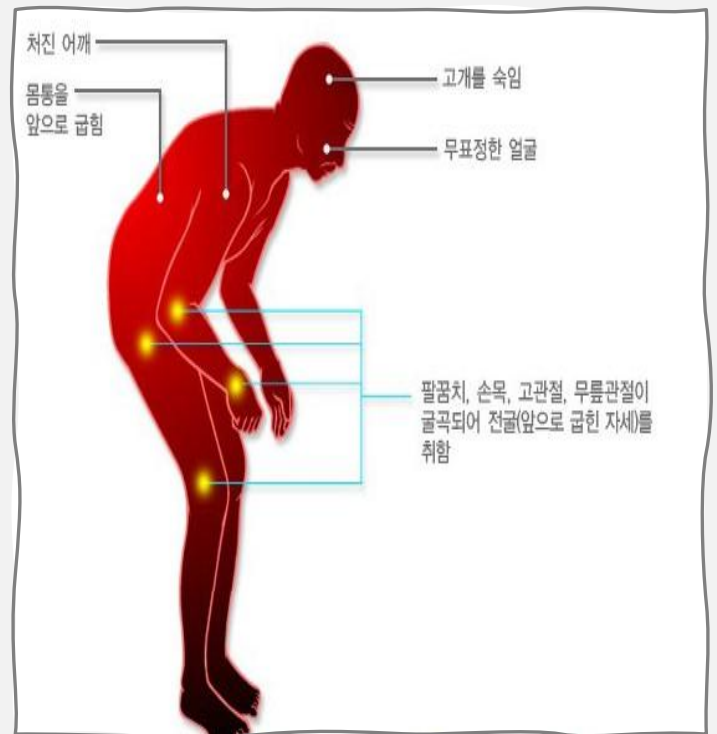
니다.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초음파 시술과 같은 대체 치료법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줄기세포 치료 또는 시술과 같은 새로운 방법들도 연구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치료는 여러 전문 분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약물치료는 신경과 전문의가 담당하며, 수술이나 시술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합니다. 또한 재활치료는 반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처방 아래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파킨슨병은 완치가 쉽지 않은 만성 질환이지만,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 그리고 가족과 주변의 관심과 지지가 더해진다면 충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와 가족이 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파킨슨병이라고 언급된 것은 없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요한복음 9장, 맹인 이야기). 파킨슨병 역시 신앙이 부족해서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약함 속의 강함(고린도후서 12장)”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이 중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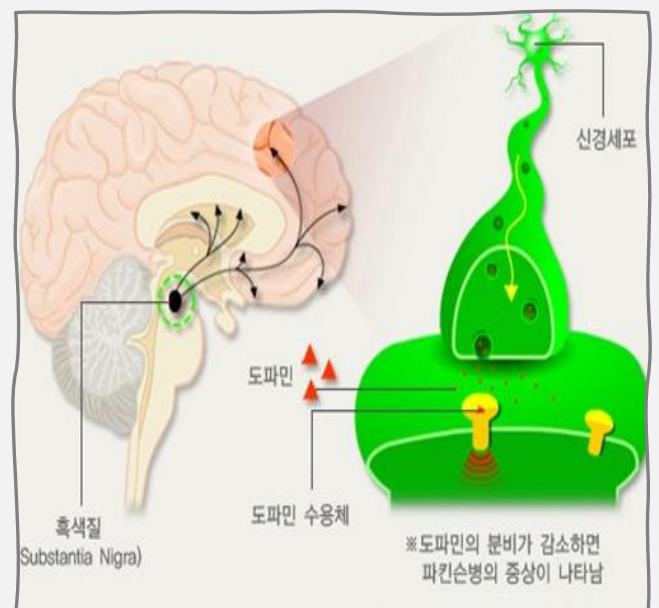
-전병찬 신경외과-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모습]



[파킨슨병 환자의 줄기세포 로봇시술 장면]



[중뇌에서 생성된 도파민의 뇌 이동경로]

## 감정의 세계가 곧 나의 세계다

이영두 집사

송원철 소금과 빛교회 목장



사람들은 오래도록 같은 답을 반복해 왔다. “감정은 원래 그런 것”, “누르면 튀어나오는 버튼 같은 것”이라고. 그런데 한 뇌 과학자가, 그 오래된 답을 조용히 뒤집는다. 그녀의 이름은 리사 펠드먼 배럿. 책의 제목은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감정을 ‘지문’ 같은 것이라 믿어 왔다. 행복에는 행복의 얼굴이, 분노에는 분노의 얼굴이, 슬픔에는 슬픔의 몸짓이 있다고 여겨 왔다. 뇌 어딘가에는 그 각각의 감정을 찍어내는 도장이 따로 새겨져 있을 거라고 믿어 왔다. 영화 속 배우의 젖은 눈동자를 보면 우리는 말없이 그 슬픔을 알아본다. 그 순간 우리는 감정이 본래 그렇게 타고나는 것이라고 조용히 확신한다.

그런데 리사 펠드먼 배럿은, 수십 년간 쌓인 수많은 연구들을 한자리에 모아 차근 차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뇌 어디에도, 특정 감정에 꼭 맞는 고유한 회로는 없었던 것이다. 감정에, ‘지문’이 없다. 이 말은 감정이 거짓이라거나 환상이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감정이 우리 몸 안에 태어날 때부터 도장처럼 찍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감정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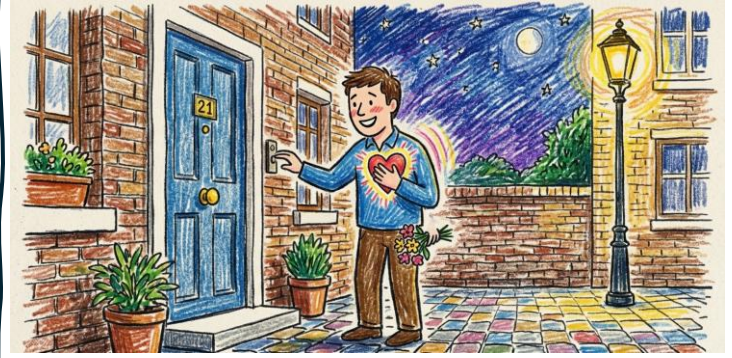
지는 것일까?

배럿의 연구는 뇌가 감정을 도장처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듯 매 순간 새로 ‘요리’해 낸다고 설명한다. 요리에는 재료가 필요하다.

첫 번째 재료는 내가 살아온 시간이다. 어린 시절 부모의 말투, 학교에서 처음 배운 단어, 책과 영화에서 만난 장면들이 차곡차곡 저장고에 쌓여 있다.

두 번째 재료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네준 감정의 이름들이다. ‘짜증’, ‘서운함’, ‘설렘’ 같은 단어 하나하나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감정을 빚어내는 틀 그 자체가 된다. 같은 두근거림을 두고 어떤 문화는 ‘분노’라 부르고, 어떤 문화는 ‘수치’라 부른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재료라도 매번 조금씩 다른 요리가 나온다는 점이다. 어제의 짜증과 오늘의 짜증은 비슷해 보여도, 뇌는 매번 처음처럼 새로 조리한다. 그래서 감정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배럿은 이 과정에 ‘구성된 감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렇다면 같은 재료가 어떻게 때로는 ‘공포’가 되고 때로는 ‘설렘’이 되는 것일까?



1) 늦은 밤, 어두운 골목을 걷는다. 가로등 하나가 멀어서 깜빡이고, 등 뒤에서 낯선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끝이 차갑게 떨리며, 호흡이 짧아진다. 우리는 그 순간 그것을 '공포'라고 부른다.

2) 오래 기다려 온 사람이 있다. 약속한 카페 앞에 도착해 문고리에 손을 올린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끝이 차갑게 떨리며, 호흡이 짧아진다. 우리는 그 순간 그것을 '설렘'이라고 부른다.

놀랍게도, 두 장면에서 몸은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심장박동, 떨림, 가빠진 숨결... 신체가 보내는 신호는 놀라우리만치 비슷하다. 갈라지는 것은 감정의 '이름'이다. 같은 두근거림에 '공포'라는 이름을 붙이면 우리는 뒤로 물러서고, '설렘'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앞으로 한 발 내딛는다. 뇌는 과거의 기억과 지금의 맥락을 재빨리 맞추며, 이 떨림에 어울릴 이름 하나를 골라낸다. 그렇게 요리는 완성된다. 그렇다면 그 이름은, 대체 누가 우리에게 건네주었을까?

그 이름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공포', '설렘', '짜증', '서운함' - 이름들은 내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천천히 내게 건네진 말이다. 어머니가 저녁상 앞에서 쓰던 한마디, 학교 복도에서 친구에게 처음 배운 표현, 책에서 만난 낯선 단어, 공동체가 오랜 세월을 걸쳐 빚어 온 감정의 어휘들이 그 안에 모두 담겨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작은 짜증 하나에도, 사실은 어제의 나와 10년 전의 나, 그리고 어린 시절 식탁 앞에 앉아 있던 내가 함께 들어 있다. 감정은 지금 이 순간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의 모든 퇴적이 공유된 결과물이다.

감정이 재료로 요리되는 것이라면, 새로운 재료를 들이는 일이 곧 새로운 감정을 빚는 길이다. 낯선 골목으로 난 아침 산책, 오래 미뤄 둔 책 한 권, 나와 다른 세계를 건너온 사람과의 한 시간의 대화... 이 모든 것이 재료 저장고에 조용히 더해진다.

새로운 이름을 배우는 일도 감정을 바꾼다. 내가 지금까지 그저 '짜증'이라 불러 왔던 감정이, 사실은 '서운함'일 수도, '피로'일 수도, '그리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같은 두근거림에 다른 이름이 붙는다. 감정의 세계가 한 뼘 더 섬세해진다.

오늘부터는 감정이 찾아올 때, 서둘러 밀어내거나 붙들지 말고 한 번만 더 들여다보자. 낯선 길로 조금만 더 걸어보고, 익숙한 감정에 새 이름을 하나 붙여 보자. 감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꾸어 가는 것이다. 어떤 감정은 숨아내고, 어떤 감정에는 물을 주며, 또 어떤 감정은 낯선 감정과 나란히 심어 보는 일. 그렇게 하루하루 내 감정의 정원을 가꾸다 보면, 어느새 내 삶 전체의 결이 달라질 것이다.

How Emotions Are Made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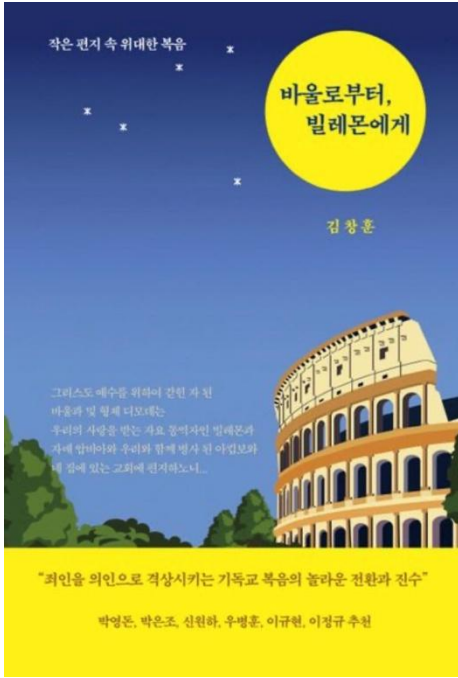
리사 펠드먼 배럿  
최호영 옮김

지금껏 감정에 관해 알려진 사실은 대부분 틀렸다!  
우리는 스스로 감정을 구성하는 설계자  
2017 TED 강연자들이 선택한 책 50

THINKING LAB  
생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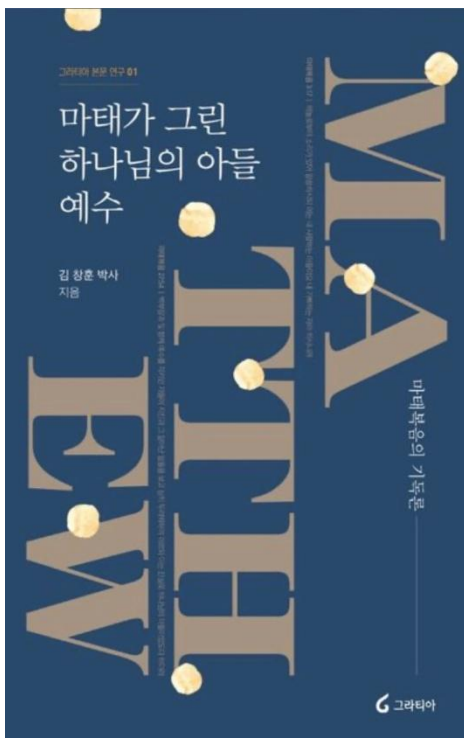
# 시민 책방

## 《바울로부터, 빌레몬에게》 김창훈, 좋은씨앗



신약 성경 중 가장 짧은 서신서인 빌레몬서를 통해 복음의 본질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작품입니다. 김창훈 목사는 바울의 개인적 편지 속에 담긴 화해와 용서, 그리고 복음의 혁명성을 섬세하게 풀어냅니다. 노예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태도는 단순한 권면을 넘어, 복음이 인간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그 안에는 교회의 정체성과 공동체 윤리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작은 편지 속에서 위대한 복음을 발견하게 하는 깊이 있는 신학적 안내서입니다.

## 《마태가 그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김창훈, 그라티아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치밀하게 탐구한 기독교론 연구서입니다. 저자는 마태가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려내고 있는지를 본문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구약과의 연결, 왕으로서의 메시아,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며 마태복음의 신학적 구조가 드러납니다. 학문적 깊이를 지니면서도 목회적 통찰을 함께 담고 있어 신학생과 평신도 모두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단단한 기초를 마련해주는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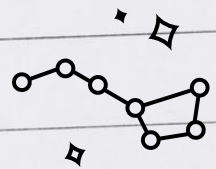
# 탁구로 나누는 기쁨, 복음으로 피어나는 생명



정경석 목사  
정경석 관사도 목장



시민교회 탁구 선교팀은 탁구를 매개로 깊은 교제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장입니다. 단순한 운동 모임을 넘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지체들이 서로를 든든히 세워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울타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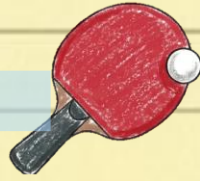


시민교회 탁구선교회 출범예배  
(2022. 11. 27.(주일) 오후 3시 2층 예배실)

제1회 당회장배 선교 탁구대회  
(2023. 11. 26.(토) 오후 2시)



## 선교팀의 목적



"탁구공이 오가는 시간, 우리 사이의 마음의 벽은 낮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은 깊어집니다."

시민교회 탁구 선교팀은 단순히 탁구만 치는 모임이 아니에요. 탁구 한 게임에 마음을 담고, 그 마음 속에 복음을 실어 보냅니다.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며 단단하게 세워가는 곳이에요. 함께 땀 흘리고 기분 좋게 웃는 시간 속에 어느덧 서먹함은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짐을 느낍니다. 운동을 넘어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느끼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주는 따뜻한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탁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실력이 조금 서툴러도, 나이가 많거나 적어도 괜찮습니다. 라켓을 처음 잡아보는 분부터 오랫동안 즐겨온 분까지 모두가 한 가족처럼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특히 교회 발걸음이 처음이신 분들은 더욱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들려주세요. 따뜻한 만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정기모임 안내



탁구 선교팀은 두 개 팀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1팀 (오전반)** - 토요일 오전 10시, 주중 월요일 저녁 7시

**2팀 (오후반)** - 토요일 오후 2시, 주중 화요일 저녁 7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운동뿐 아니라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 실버대학

작은 탁구공 하나가 톱톱 튀고 따뜻한 미소가 오갈 때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아이 같은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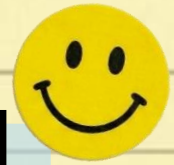
이 짧은 시간들이 모여 무료했던 일상에 기분 좋은 활기를 불어넣어 드리는 것 같아요.

라켓을 맞대며 함께 땀 흘리는 그 찰나의 순간마다 건강도, 마음도 한 뼘 더 단단해 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나누는 이 온기 있는 시간들이 어르신들의 삶에 든든한 힘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선교회 조직 및 섬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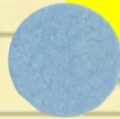


탁구 선교팀은 다양한 봉사과 역할을 통해 운영됩니다.

선교회장 : 양희권 은퇴 장로

1팀장 : 김후곤 집사

2팀장 : 정경석 집사



회원들은 각자 역할을 맡아 대외 협력, 탁구장 관리, 신입 회원 안내, 교회 봉사 등으로 적극 참여하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 탁구 선교팀에서 하는 일

1. 탁구를 넘어, 삶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건강한 울타리

탁구 선교팀은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2. 세심한 배려로 성장을 돕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탁구 기초 지도를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월 1만 원의 투명한 운영으로 모두가 쾌적하게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3. 따뜻한 동행으로 하나됩니다

탁구는 마음의 문을 여는 귀한 통로입니다. 교회가 낯선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공동체 안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신앙 상담과 소그룹 연결 등 진심 어린 정착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탁구를 넘어, 삶을 나누는 공동체

운동에서 교제로,

교제에서 신앙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동행

탁구 선교팀의 힘은 ‘관계의 힘’에서 나옵니다. 탁구라는 공통분모로 모여 땀 흘리는 시간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서로의 삶을 돌보고 기도로 세워주는 견고한 신앙 공동체의 밑거름이 됩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위해 왔다가

- 운동으로의 초대 :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된 첫 만남이
- 진심 어린 교제 : 따뜻한 나눔을 통해 마음의 벽을 허물고
- 신앙의 변화 : 마침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곳



## 함께 합시다

탁구 선교팀은 이 복된 여정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탁구로 건강하게, 교제로 풍성하게, 믿음으로 단단하게!”

시민교회 탁구 선교팀의 문은 언제나 당신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처음이어도,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운동하고 삶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마음 가득 은혜가 채워질 거예요.

혼자 오셔도 괜찮습니다. 라켓을 잡는 순간, 당신은 이미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1팀 오전반 회원



2팀 오후반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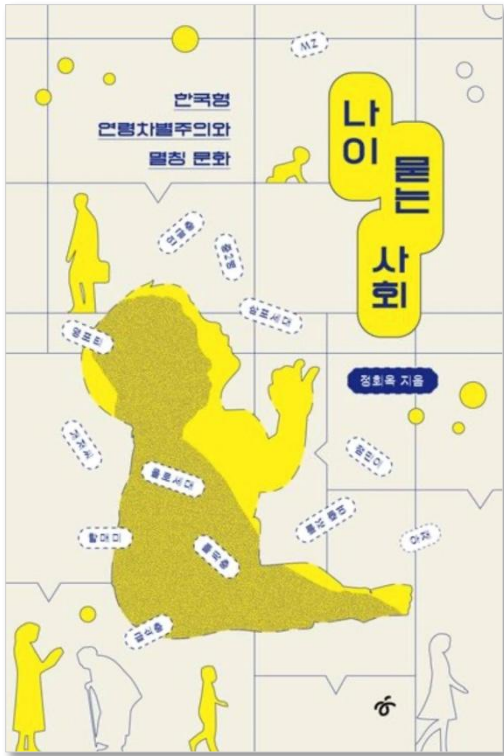
1팀 오전반 운동

2팀 오후반 운동



# 여름 독서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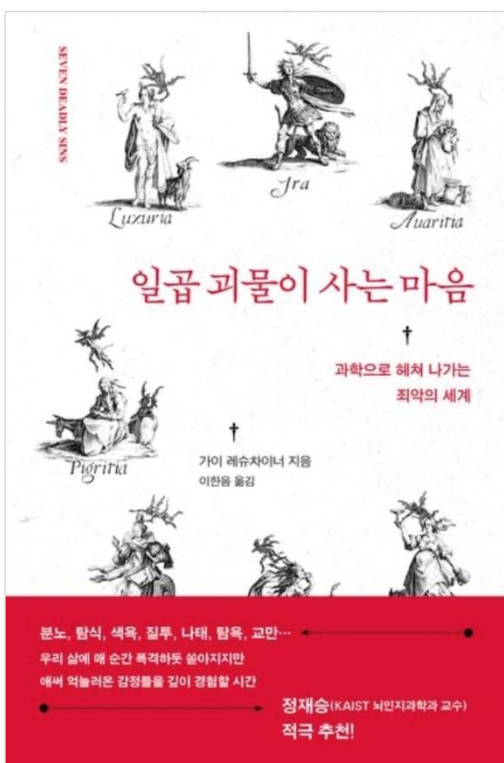
## 《나이 묻는 사회》 정회옥, 한겨레출판



《나이 묻는 사회》는 ‘잼민이’, ‘틀딱충’, ‘영포티’처럼 일상에 스며든 나이 멸칭을 통해 한국 사회의 ‘연령차별주의’를 날카롭게 분석한 책이다.

저자 정회옥은 세대 간 혐오와 차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확산되는지 짚으며, 나이로 사람을 규정하는 사회를 넘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나이 묻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 《일곱 괴물이 사는 마음》 가이 레슈차이너, 흐름출판



이 책은 인간의 ‘분노·탐욕·질투·색욕·교만’ 같은 죄악과 본능을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뇌과학과 진화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인간의 감정과 행동이 어떻게 유전자, 뇌 구조,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지를 분석하며, 자유 의지와 책임,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신학·철학·신경과학을 넘나들며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게 만드는 강렬한 인문과학 교양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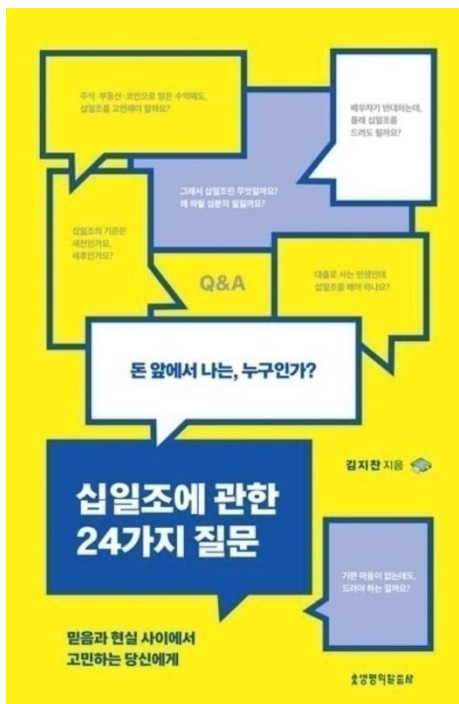
《하나님의 출근 수업》 서창희, 생명의말씀사



불안한 커리어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터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위로를 전한다. 준비가 완벽히 끝난 뒤에야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메시지가 깊은 울림을 준다.

끝없는 경쟁과 성공 압박 속에서 커리어가 삶의 전부가 되어 버린 시대, 이 책은 일의 의미뿐 아니라 관계와 사랑, 삶의 균형까지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지친 출근길에 하나님이 건네는 따뜻한 응원 같은 책이다.

《십일조에 관한 24가지 질문》 김지찬, 생명의말씀사



십일조를 단순한 의무나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고백으로 풀어낸다. “얼마를 드렸는가”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에 집중하며, 돈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균형 잡힌 시선을 제시한다.

가난, 현실적인 경제 문제, 부부 갈등 같은 실제적인 고민까지 함께 다루며, 헌금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따뜻한 신앙 안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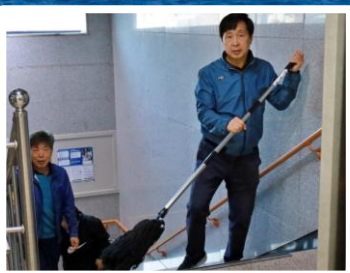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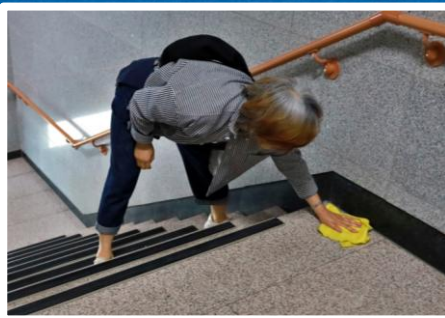
# 종려주일 성찬식 / 부활절 칸타타



# 새가족 환영의 날 / 가정교회 20주년



# 세겍줄 기도회 / 봄맞이 대청소



# 어버이 주일 예배 / 근속 교사 시상



## 말레이시아 SEA부족 성경번역 및 활용 이야기



### 이요한 조이 (이사랑 이한결 이선) 선교사

2012년 교단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선교 훈련생이던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가장 처음으로 후원을 약속하셨던 교회가 바로 울산시민교회였습니다. 그 이후 오늘까지 지난 14년간 저희를 꾸준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하며 동역해 주신 울산시민교회 성도님들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 정글 속 SEA 부족

저희 가정은 2014년에 말레이시아로 파송받아 말레이반도에 거주하는 원주민 SEA 부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SEA 부족은 말레이시아 반도에서 오래전부터 살아온 인구 6만 명의 소수 종족입니다. 그들

은 이슬람 세력인 말레이 사람들의 탄압을 피해 산속 정글로 이주하였고, 무속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정글 속에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20세기 초 영국 식민 통치 말기 감리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와 교회를 통해서였습니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에 바라후(1945-2011)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학교를 다니던 시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그를 통해 그의 부모님과 마을 사람 모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인이 되어 SEA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 열방을 향하여

### 성경 번역의 첫걸음

그 후 산골 깊은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자기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던 바라후 목사님은 당시 사용하던 공용어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언어인 SEA어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누가복음을 번역해서 사용하려 했으나 번역이 초래하는 오해와 기술적인 어려움 등을 경험하며 전문적인 도움의 필요를 느낀 목사님은 1980년대부터 감리교 총회를 통해 국제 성경 번역 단체에 SEA어 성경 번역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2002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하나둘 합류하여 SEA어 방언을 연구하고, 철자를 만들고, 단어를 수집하여 사전을 편찬하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에 누가복음의 번역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라후 목사님은 열심히 번역한 누가복음의 출판을 보지 못하고 2011년 1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SEA 마을 성경 공부 모임

### 마침내 완성된 신약 성경

이후 바라후 목사님의 아내 와난핀 사모님과 다섯 개의 SEA 교단에서 추천한 형

제자매들이 성경 번역 선교사들과 팀을 이루어 번역을 이어갔습니다. 2014년 1월에는 저희 가정도 SEA어 성경 번역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여러 선교사들과 현지인 사역자들이 바통 터치를 해 가며 22년간 땀 흘린 끝에 2024년 3월, 드디어 세마이 사람들은 자기 말로 된 신약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SEA어 오디오 성경 배포

하지만 바라후 목사님이 남기기 원했던 말씀의 유산은 단지 번역된 성경책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SEA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SEA어 신약 성경이 출판된 이후 지난 2년간 저희는 SEA 교회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출판된 성경을 사용하도록 돕는 성경 활용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 곳곳에 성경 읽기/공부 모임을 열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성경을 읽고, 질문에 답하고, 어려운 구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리더 성경공부를 통해 모임을 인도해 갈 리더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번역자 아담 형제는 SEA어 성경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읽어온 말레이어

## 열방을 향하여

성경을 제 부족어로 번역하면서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많이 놀랐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고 공용어인 말레이어 성경도 충분히 읽을 수 있지만 제 부족어로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충격은 달랐어요. 말씀은 제 삶을 변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SEA어 성경을 끝까지 번역하고 싶어요. 어려움도 많고 도전도 많지만 제가 경험한 그 말씀의 영향력을 다른 SEA 사람들도 경험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리더 성경공부



SEA어 성경 퀴즈대회

아담 형제는 신약 성경이 출판되던 2024년에 이 비전을 안고 미국 휘튼 신학교에서 신구약 성서해석학 석사 과정을 시작해서 올해 5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담 형제뿐만 아니라 자기 말로 된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많은 SEA

부족 사람들의 삶에 열매가 맺히고, 그들이 자기 부족 사람들을 위해 다시 헌신하는 일들을 저희는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 현지 교회의 새로운 내일을 꿈꾸며

SEA어 구약 성경 번역이 아직 남아 있지만, 저희는 저희가 이 일을 착수하기보다는 이미 번역된 신약 성경을 읽고 변화된 SEA 교회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구약 번역을 이어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뿌리고 심는 이 사역을 통해 SEA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동역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누리아 퀴즈 ~ 가로 세로 퍼즐



- 가로 1. 파킨슨병 진단 초기 약물과 병행이 중요한 것은?
- 가로 2. 박진형 목자는 평신도 세미나 섬김을 받으며 ○○ 귀족이 된 것 같았다
- 가로 3. 나이 묻는 ○○
- 가로 4. 이요한 조이 선교사님의 주 사역
- 가로 5.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격과 권위
- 가로 6. 우주의 나이가 150억년이라는 해석이 시작된 계기
- 가로 7. 안헌영 성도님이 세상의 소음에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맞추고자 하는 것

- 세로 1. 불가리스 요거트를 건넌 형제님의 목사님
- 세로 2. 최요섭 목사님께서 두 번 맡으신 사역
- 세로 3. 그 마음에 시온의 ○○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 세로 4. 유진이 작가의 데뷔작 이름은? (네이버 웹소설)
- 세로 5. 파킨슨병은 ○○○를 정해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010-6638-0606 (문자 접수) ?!  
(답장이 없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호 당첨자>

민숙이 / 이한나 / 이영애c  
조보성 / 김귀중

😊 축하드립니다~~ 😊

사무실에서 선물을 수령해 주세요!!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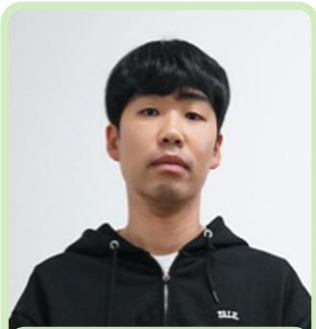
김두복  
(2월 15일)



최진우  
(2월 22일)



박성애  
(2월 22일)



전효재  
(3월 1일)



이창훈  
(3월 1일)



이동수  
(3월 1일)



김현숙  
(3월 1일)



김주일  
(3월 1일)



어세진  
(3월 1일)



이혜원  
(3월 8일)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김재희  
(3월 15일)



김건한  
(3월 15일)



김진모  
(3월 15일)



최현준  
(3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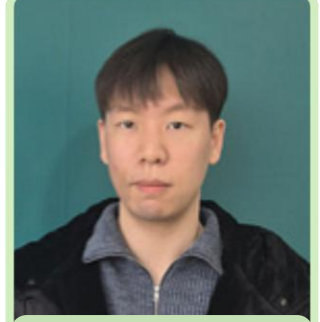
장한원  
(3월 22일)



이현철  
(3월 22일)



조은영  
(3월 15일)



이아론  
(3월 15일)



김정하  
(3월 22일)



최성자  
(3월 29일)



송모세  
(3월 22일)



김홍원  
(3월 22일)



박선우  
(3월 29일)



임수현  
(4월 5일)



허진우  
(3월 29일)



조예은  
(3월 29일)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황명지  
(4월 5일)



이혜은  
(4월 5일)



김수빈  
(4월 5일)



공선례  
(4월 5일)



이동환  
(4월 12일)



김은영  
(4월 12일)



권재현  
(4월 12일)



김상은  
(4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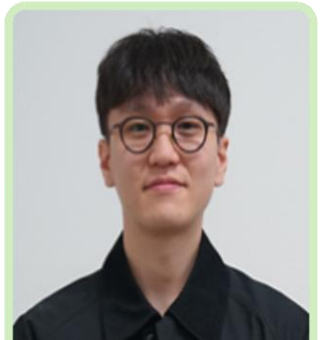
윤기한  
(4월 19일)



변경환  
(4월 19일)



김나현  
(4월 19일)



양원준  
(4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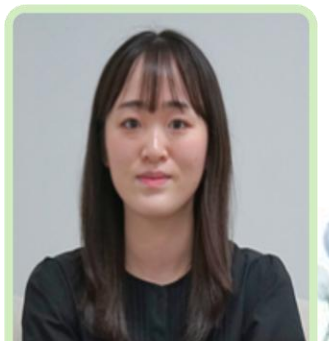
강옥순  
(4월 26일)



김병연  
(5월 3일)



이양우  
(5월 10일)



유유진  
(5월 10일)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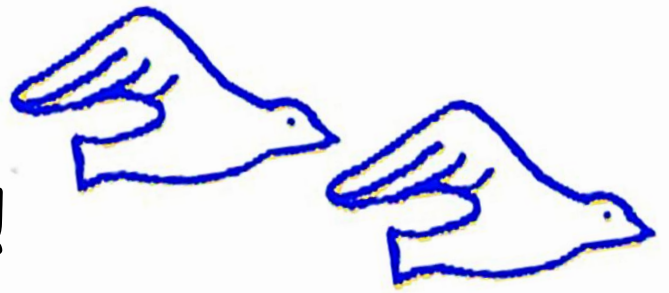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 편집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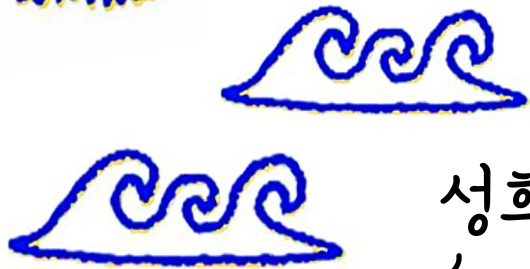
와, 여름휴가 가자!



태순      수현      인혁      민희  
 진형      인영



춘혜  
 현욱



승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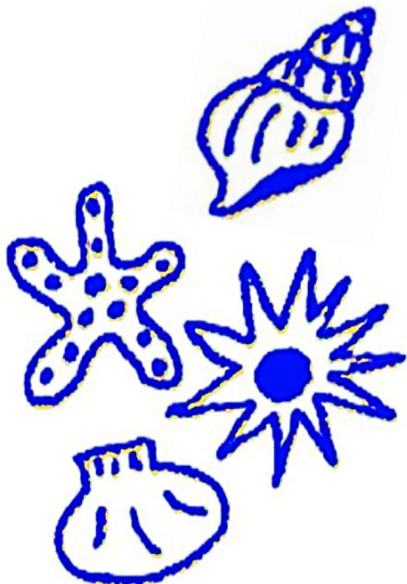


성희      다빈

영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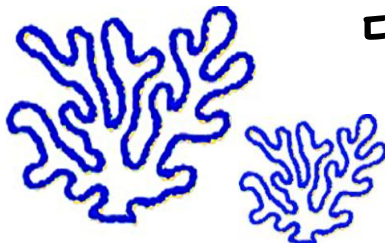
현화      수진



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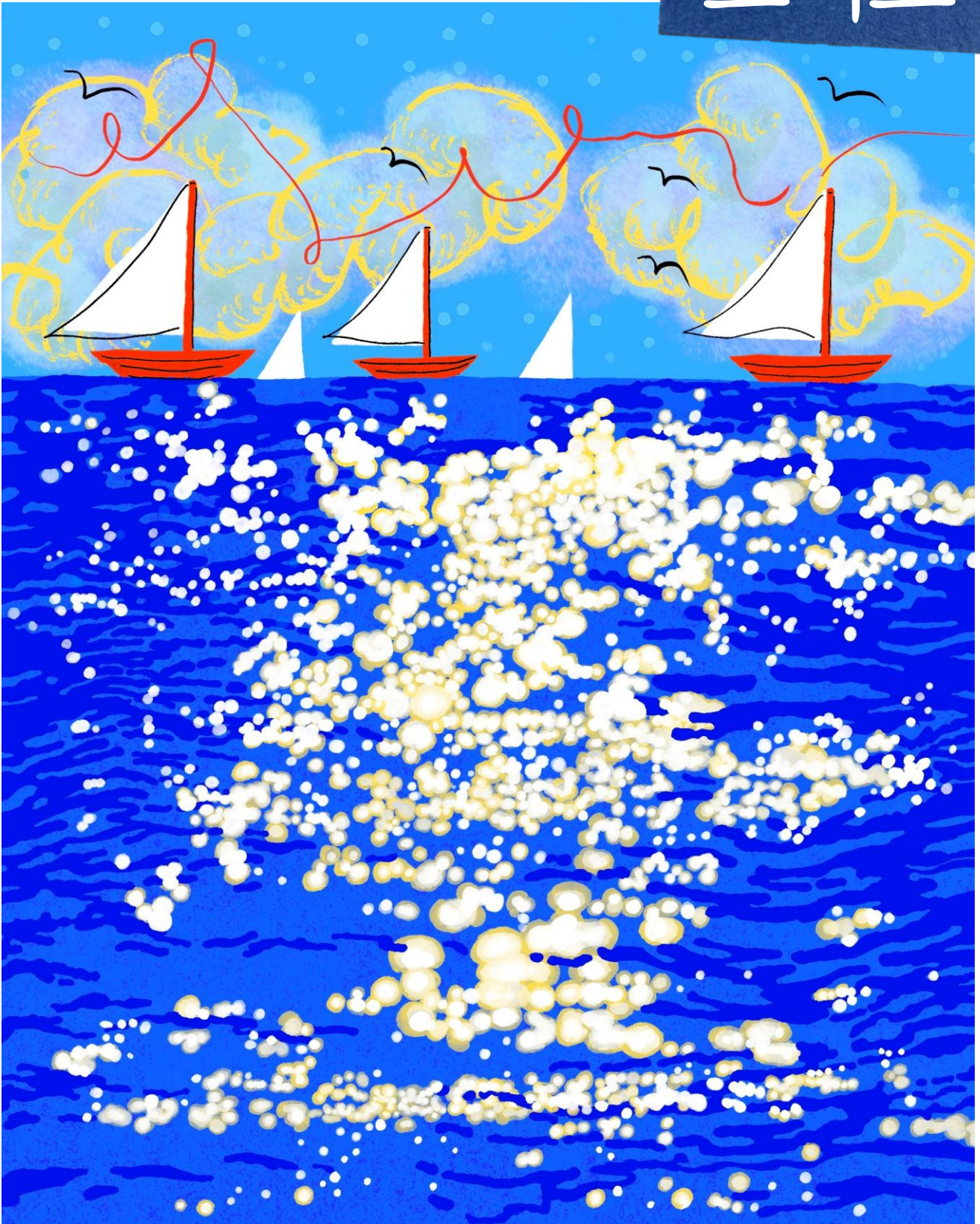


대한



유림





## 〈 여름호 : 찬란 〉

떠나기 전, 많은 이야기들을 땅에 두고 가거나 배 위로 데려 간다.

항해하는 배가 지나간 자리에 직조된 윤슬이 일렁인다.

- 표지 디자인 전수진 -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 울산시민교회

## ▶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목장 연합예배	1부	오전 07:30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09:30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전 11:45	본관 3층 예배실
	4부 싱글(청년) 예배	오후 14:00	교육문화센터 3층 다솜울
주일학교 예배안내	킹즈베이비(영아부, 4세 이하)	오전 11:30	본관 1층 우측 예배실1
	킹즈키즈(유치부, 5~7세)	오전 11:30	본관 1층 우측 예배실2
	예답키즈(유년부, 초1~3학년)	오전 11:30	교육문화센터 2층 마루홀
	드림키즈(초등부, 초4~6학년)	오전 11:30	교육문화센터 4층 알음울
	어린이영어예배(VIEW)	오전 09:30	교육문화센터 6층 예배실
	파워틴(중등부)	오전 11:30	교육문화센터 3층 다솜울
	비전틴(고등부)	오전 09:30	교육문화센터 3층 다솜울
	소망부(장애인)	오전 11:30	교육문화센터 6층 예배실
	실버대학	수 오전 10:00 / 봄,가을 학기	본관 2층 소예배실
	몽골예배	오후 5:00	주차사무실 2층
	베트남 모임	주일 3부 예배 후	본관 2층 상담실
기도회	수요기도회	오후 7:30	본관 3층 예배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본관 3층 예배실
	중보기도회	매일	중보기도실
	주일중보기도회	주일 2부 3부 예배중	주일중보기도실
	어머니기도회	목 오전 10:30 / 봄, 가을 학기	교육문화센터 6층 예배실
	온가족새벽기도회	오전 5:30 / 매월 첫주 토요일	본관 3층 예배실

## ▶ 오시는 길



## ▶ 예수님 영접모임 안내

### 울산시민교회 예수님 영접모임

※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b>일시</b>	일요일 - 오후 02:00 수요일 - 오전 10:00 토요일 - 오전 10:00
<b>장소</b>	울산시민교회 본당 - 새가족실
<b>문의</b>	강성민 목사 (010-6677-3927)

전화 052-277-6091  
070-7123-0221  
팩스 052-277-6094

발행인 김창훈  
편집장 이태순  
부편집장 박진형

편집위원 김수현 김인혁 류민희 박은영  
박춘혜 박현욱 우승엽 윤성희  
이다빈 이영두 이현화 전수진  
전병국 정대한 최유림

발행처 울산시민교회  
울산 중구 운곡안길 24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 CONTENTS

2026. 여름 Vol.10

# 바로가기 목차

03  
누리에의 향연  
시편 84편

04  
목회 공감  
찬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부신 초대

06  
여름호 특집  
목자,목녀님의 20년  
그 따뜻한 기록

12  
집중 조명  
구치소 사역

14  
목장 탐방  
송태성 목장

16  
삶의 현장  
나니아랩  
김홍일

19  
쉬어가기  
일러스트  
권시아

20  
마음 나누기  
예수님 영접 모임  
고용현

22  
마음 나누기  
예수님 영접 모임  
조선주

24  
마음 나누기  
생명의 삶  
안예슬

26  
마음 나누기  
생명의 삶  
유진이

28  
마음 나누기  
생명의 삶  
정용래

30  
마음 나누기  
생명의 삶  
우승엽

32  
마음 나누기  
생명의 삶  
정한별

33  
마음 나누기  
생명의 삶  
이효신

34  
마음 나누기  
평신도 세미나  
박진형

38  
쉬어가기  
웹툰 - 찬란한 동행  
정시연

43  
신학 아티클  
믿음이 약하다고  
느껴질때

46  
문화 광장  
음악 산책  
안현영

48  
문화 광장  
미술 정원  
장우진

52  
문화 광장  
과학 플러스  
곽규진

56  
문화 광장  
건강 토크  
전병찬

58  
문화 광장  
생각하는 독서  
이영두

61  
쉬어가기  
시민 책방

62  
동호회 소개  
탁구 선교회

68  
쉬어가기  
여름 독서여행

70  
우리의 도약  
26년 3월~5월

74  
열방을 향하여  
성경 번역  
이요한 조이 선교사

77  
쉬어가기  
누리에 퀴즈

78  
새가족 소개  
2, 3, 4, 5월

82  
편집을 마치며  
문서사역부 일동

83  
표지 그림 소개  
여름호 : 찬란